(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52 1982년 6월 17일(목) ·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June 17,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JUN 1 8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형 유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고부장 : 송 광 일

전대통령 캐나다 방문

8월18일부터 3일간

캔두원자로·환태평양정상회담 협의

(오타와=이태은지국장) 한국의 전두환대통령이 오는 8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캐나다를 공식방문한다.

트루도수상이 작년9월 한국을 방문한데 대한 답례방문으로 보이는 이번 캐나다 방문에서 전두환대통령은 트루도수상등 캐나다당국자와 일련의 회담을 갖고 양국의 관심사를 논의한다.

전대통령의 캐나다방문 일정도 17일아침 10시정각 한국과 캐나다에서 동시 발표 예정이다.

전대통령은 캐나다방문중 캔두원자로 추가구입 문제를 확정지을 예정이며, 지난5월 뉴질랜드수상의 방한중 전대통령이 제안한 환태평양정상회담을 트루도수상에게 정식제의 할 것으로 보인다.

환태평양정상회담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등 태평양연안국가수뇌들이 모여 상호의 관심사를 논의하는것을 의미한다.

전대통령은 오타와만 방문할 예정이며, 오타와방문중 숙소는 에드워드·슈라이어총독관저로 알려졌다.

한국수뇌의 캐나다방문은 양국국교가 맺어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9월 방한한 트루도 수상과 전두환 대통령의 정상회담

트루도 은퇴지지 국민 58%, 갤럽

과반수이상의 캐네디안이 트루도수상의 은퇴를 원하고 있음이 16일발표된 갤럽여론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조사에 의하면 설문응답자중 58%가 다음 선거때 자유당에서 트루도대신 다른사람이 출마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오직 29%만이 트루도가 계속머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보수당지도자 조·클락의 재출마에 관해서는 47%가 반대, 35%가 찬성했다.

신민당(NDP)의 에드·브로드벤트당수는 재출마 찬성54%, 반대20%로 3당 당수중 가장높은 지지도를 얻었다.

한편, 당원들간의 지지도 조사결과 3당의 지도자들은 모두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여기에서도 브로드벤트신민당수가 83%로 최고의 지지를 받았고, 트루도자유당수가 73%, 클락보수당수는 최하위로 58%였다.

만주교포 고국방문 좌절

일본방문중 한국비자발급 지연

한국·중공대사관 서로책임미루어

(도쿄=연합) 중국본토에 사는 한국인이 40년만에 고국을 방문하려던 꿈이 온갖 노력끝에도 불구하고 좌절됐다.

지난 4월2일부터 일본을 방문중이던 양순덕(57)씨가 한국의 친척을 만나려던 숙원은 한국대사관이 외교관계가 없어 중공의 허가없이는 입국비자를 줄 수 없다고 답변, 특별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일본방문 비자만기로 끝나버렸다.

만주의 승양에서 6명의 자녀와 거주하고 있는 양여인은, 일본및 한국방문을 위해 11개월간 미화600불을 저축했다. 도쿄에 살고있는 오빠 양팔수(61)씨와 만난 양여인은 16일 만주로 떠나는 길에 공항에서 기자에게 "고국의 친척들에게 통일이 될때까지 잘 살으라"는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42년 남편 송영우씨와 일본군을 피해 고향인 전라북도 임실을 떠나, 만주로 이주한 양씨는, 77년 남편이 위암으로 숨질때 까지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남편이 사망하기 얼마전 한국과 일본의 친척들에게 편지를 해본후, 양씨는 12살때 헤어진 재일교포인 오빠 판수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오빠로부터 부모님은 돌아가셨으나 형제들은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양씨는 이들을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일본을 방문했다.

도쿄에서 한국입국비자를 신청하자, 주일한국대사관은 중공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비자를 발급한다고 답변했고, 도쿄주재 중공대사관에 특별청원했으나, 중공대사관은 또 승양시에 요청토록 조언, 승양시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일본방문비자 기한이 만료돼, 양씨는 거주지 만주로 돌아가야 했다.

=리틀 야구=
82년7월3일(토)
코로네이션·파
70년1월1일이후 출생 자녀.
교회팀, 한글학교팀, 지역팀등 출전함.
연락처 : 한국일보사
전 화 : 533-2361

정길수 1위 74점

천주교골프대회성황, 83명 참가

◆ 1위 정길수의 골프폼.

금년세번째 교민 골프시합인 제6회 천주교골프 대회(본사 후원)에는 83명의 교민골퍼들이 참석, 성황을 이룬 가운데 정길수씨가74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2일 볼톤(토론토 서북쪽)근교 글렌이글 골프장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날씨가 비교적좋아 1등 정길수씨외에도 모두 5명이 70점대를 기록하는 성적을 올렸다.

항상 참가자 수가 넘쳐 미리 예약을 받는 이 대회에는 5월31일 예약접수를 마감했을때 84명이 등록, 1명만 불참하고 83명이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그로스와 넷트조 6위까지 트로피를 수여했다. 수상자명단과 성적은 다음과 같다.

챔피언	정길수	74
2등	박영철	78
3등	김진기	78
4등	백광수	79
5등	김창갑	79
6등	최호영	80

		Gross	Net
넷트챔피온	박광철	98	62
2등	원장호	81	66
3등	장인수	81	66
4등	박상남	81	67
5등	박기복	86	68
6등	김성택	87	68

Longest 김영대 270야드
Nearest 이호웅 3 피트
Honest 박홍일 117
Best Organizer 한아네스
(무나미트로피 제공)

장려상 송종보
(브램톤운동구점 제공)

◆홍진표 진행위원이 정길수씨에 우승트로피를 수여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 627 Bloor St. W.
533-8593

경제특집 - 지상 FORUM

김상용 경제학박사 4

정부는 지금 캐나다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원인은 전적으로 미국의 계속되는 고금리정책에 연유된 것으로서 미국이 이자율을 내리지 않는한 정부로서는 어찌 달리 손을 쓸 도리가 없고, 오직 미국이 이자율을 내리고, 또 이에 따라 미국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수수방관의 태도를 견지해왔다.

그러는 동안 캐나다경제는 1930년대 초반의 경제대공황이후 최악의 불황에 빠져들게 됐다.(지난 12개월동안에 공업생산이 매월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의 정당인기도에 관한 「갤럽」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국민여론이 이런 경제상황아래서 자유당정부에 호의를 보일리 만무이고, 정부 또한 이러한 여론의 압력을 민감히 느끼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최근 정부는 「프랑스·벨사이유」에서 열린 7개국 경제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다른나라들의 압력에 의해 이자율정책을 수정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일말의 희망을걸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벨사이유」회담은 별 성과 없이 끝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표로한 경제정책이 수정될 전망이 전혀 없어진 것이 확실해지자, 정부는 트루도수상및 각료들의 언급을 통하여 앞으로 1~2개월내에 경제회복을 위한 모종의 경제조처가 발표될 것이라는 시사를 하고있다.

정부의 경제시책중 가장 많이 여론의 지탄을 받는 것으로 1980년에 발표된 「국가에너지종합계획」(National Energy Program)을 들수있다. 이것은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대우, 외국기업의 국유화등으로 외국장기자본의 대량유출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또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적극 억제하는 결과를 낳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투자활동이 이에따라 격감, 외국자본의 대량유출을 만들었고, 캐나다달러가 급작스레 내림세 길을 걷는 주원인을 만들었다.

[2면에 계속]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54 BLOOR ST. W.
(Bloor & Bathu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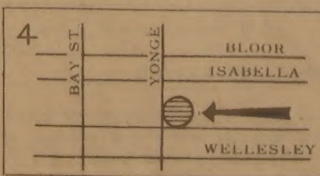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江戸前 太鼓寿司
어제 오신 분이 ── 또 오십니다
쓰시(김밥) 전문
일본음식중 김밥만 전문으로 하고 있읍니다.
밤 12시까지 OPEN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십시오.



TAIKO SUSHI
607A YONGE ST.
☎ : 921－6408

씨알여름학교안내

씨알여름학교안내

자 격 : 유치반부터 9학년까지
시 간 : 아침9시30분부터 오후3시까지 월～금(Day Care는 8시～6시까지)
기 간 : 7월5일～8월13일까지
장 소 : John Wanless Public School 250 Brookdale Ave. TOR. (로렌스와 아베뉴로드)
수업료 : 1학생 160불 · 2학생 310불 · 3학생 400불 (1개월반 : 6주간)
뻐 스 : 동 · 서, 다운타운, 미시사가지역에서 운행합니다. 441－2986으로 신청요망.
뻐스비 : 한학생 140불, 두학생 270불, 미시사가－한학생 160불, 두학생 300불

※DAY CARE SERVICE－60불추가.

씨알여름학교신청서

학생이름 ______
생년월일 ______
현재학교이름 ______
학년 ______ Brough of ______
주소 ______
______ Postal Code ______
전화번호 Res. ______ Bus. ______

신청과목 영어 · 수학 · 과학 · 피아노 · 바이올린 · 미술 · 무용 · 태권도 · 축구(한국어는 필수 과목임 — 무료)
▲이중에서 두과목만 ○표 치십시오.

보낼곳 THE SEE－ALL KOREAN SCHOOL 150 MADISON AVE. TOR. M5R 2S5
부모이름 ______ 싸인 ______

조국과겨레를위한 금식기도회

꿈에도 잊을수없는 6·25. 또 잊어서는 안되는 6월25일이 다가옵니다. 32년전에 이날의 아픔을 되새기며 다시는 이런비극이 없기를 바래서…

지금도 가슴이터질듯한 안타까운 실정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조국과겨레를 위해서 옛날 이스라엘민족이 어려움을 당할때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에 돌보심을 받은것을 기억하고 이 하루만이라도 조국과 겨레를 위해 금식하고 한자리에모여서 한마음과 한뜻 한재목을 가지고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고저 자리를 마련하였읍니다. 바쁘고 피곤하시더라도 토론토에 계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회원들은 꼭오셔서 기도회 재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 : 1982년6월25일(금)오후8시
곳 : 토론토한인장로교회

주최 : 토론토지역한인 기독여성회연합회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블루어한인상가 미화운동
번영회 주동으로 추진

블루어한인상가 미화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코리아타운번영회(회장 장순채)는 블루어스트릿의 배서스트와 크리스티사이가 토론토시로부터 지역사회개발구역 6개중 하나로 선정된데 힘입어, 지난 5월중 이 지역시의원인 잉·호으씨, 시 건설과장, 어네스트·에드 사장인 에드·미비쉬씨, 맥도날드사장등과 만나, 미화작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배서스트와 크리스티사이의 업체수는 총 250개로 그중 약30%가 한인업체이다.

장순채회장은 16일 미화작업으로는 가로수심기, 인도에 블록깔기, 꽃심기등이 있으며, 이지역에 한인업체의 비중이 큰만큼 한인을 상징하는 색채를 넣는 것도 검토중이며, 실제작업은 금년가을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화작업이 실현되는데는 적어도 140업체의 찬동서명이 있어야하며, 서명운동은 이미 시청에서 추진중이다.

작업에드는 경비는 주로 해당구역사업체의 세금으로 충당하며, 시에서는 도로단장등 기본경비만 낸다.

잉·호프 토론토제5지구시의원은 "약4개월전 이 지역 미화계획을 들었다. 이 계획이 검토과정을 거쳐, 실현단계에 들어가는데는 약1년은 걸릴것으로 본다. 이문제는 코리아타운번영회와 별도의 위원회에서 논의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번영회장은 "이 지역에 들어서면 한국적특색을 느낄 수 있게끔 해보려 한다. 많은 한인업체들의 협조를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휘군 암으로 숨져
연합교회 김익선목사 장남

토론토한인연합교회 김익선목사(58)의 장남 김경휘(22)군이 오랫동안 암으로 고생하다, 14일아침 숨졌다.

김군은 내장에 암세포가 발견되자, 토론토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작년6월부터 요양해 왔었다.

김군의 영결예배는 14일 하오8시 한인연합교회에서 이상철목사 집례로 열렸으며, 장례식은 15일 상오10시에 있었다.

김군의 유해는 욕공동묘지(York Cemetry) 한인구역에 안장됐다.

조객으로는 연합교회신도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남동생과 함께 캐나다에 이민온 김군은,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교민종교인구 조사착수

한인침례교회(담임 홍선웅목사)는 온타리오, 퀘벡 침례교총회 지원으로 토론토거주 한인종교인구 조사를 6월1일~8월31일 3달동안 실시한다.

이번 종교인구 조사의 목적은 한인교포들의 종교현황을 파악, 종교가 이민생활에 끼치는 영향, 효과적인 신앙생활지도 모색및 한인들의 거주지역 분포를 파악하는데 있다.

◆운구—서거한 사우디 칼레드국왕의 시신이 사망지 타이프에서 공수된 후·사우디 관습에 따라 갈색천에 덮혀 리야드로 옮겨지고 있다.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국왕 사망
동생 파드황태자계승
친 서방정책 고수

〈리야드〉칼레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13일 심장마비로 급서했다. 향년 69세.

새로운 왕위는 고 칼레드왕의 이복동생인 파드황태자(60)가 계승했다.

75년 파이잘왕의 피살로 왕위에 올랐던, 고 칼레드왕은 지병인 심장병때문에 그동안 국사를 파드황태자에 실질적으로 위임해 왔으며, 서거때는 산간휴양도시인 타이프서 여름을 보내고 있었다.

리야드로 옮겨진 고 칼레드왕의 시신은 연갈색천에 싸인채, 이슬람교 율법과 사우디 관습에 따라 조촐한 장례절차로 일몰직전 왕실공동묘지에 안장했다.

새로 즉위한 파드왕은 그동안에도 실질적인 실권자였던만큼, 그의 친서방및 중동에 대한 온건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드왕은 14일밤 고 칼레드왕 장례후, 수시간만에 가진 라디오연설을 통해 전국민에게 고 칼레드왕의 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임을 다짐했다. 파드왕은 호

▲파드새국왕

느끼면서 "우리는 고 칼레드왕의 희망과 계획을 계속 실현시켜 나가자"고 호소한후, "우리가 할일은 아랍과 이슬람교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파드왕은 때때로 PLO를 강력지지하는 발언을 해왔지만, 고 칼레드왕과는 달리 편파적일 정도의 친서방·친미정책을 계속 추구할것이 틀림이 없다. 헤이그 미국무장관은 TV인터뷰에서 파드왕을 "미국의 가까운 친구요, 동지"라고 표현했다.

파드왕은 또 지금까지 취해온 사우디의 온건한 유가정책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파드왕은 즉위후, 이복동생이며, 사우디국가방위군사령관인 압둘라(58)왕자를 황태자로 책봉했다.

파드왕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데, 슬하의 여러 왕자중 3명은 미국의 UC산타·바바라에서, 1명은 영국육사에서 수학중이다.

그러나, 고 칼레드왕과는 개성과 용모가 확연히 다른 파트왕은, 앞으로 은둔의 나라 사우디를 중동및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 갈 것 같다.

파드왕은 지난79년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이래, 불화관계에 있던 이집트와 화해를 모색할 것으로 외교분석가들은 전망한다.

이집트는 고 칼레드왕을 서거에 14일의 애도기간을 선포하는 한편, 무바랙대통령은 조문차 리야드를 방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무바랙대통령은 리야드 방문중 조문온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도 만나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진단 시사 FORUM

불황·진단과 대책

김상용 경제학박사

[1면에서 계속]

◆김상용 박사.

작년11월 발표된 예산안은 민간저축및 기업투자를 억제하는 세제개혁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투자부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외에 최근 고용증대및 경기회복면에서 크게 대망되고 있던 알샌드(알버타주의 석유모래)프로젝트, 알래스카파이프라인 프로젝트등 두 거대한 에너지투자사업이 전면 취소, 또는 무기연기된데에는 최근 석유가격의 하락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생산원가와 가격이 안맞는다), 정부가 우유부단, 민간경제에 지나친 간섭, 과중한 석유세금 수입의 요구등 정부의 부적절한 에너지정책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이에따른 에너지산업의 침체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정부는 최근 2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에너지관계기업들에게 감면해줄 것을 제의한바 있으나, 이것은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위의 두 에너지프로젝트 취소로 생긴 경제손실을 돌이키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의 견해다.

미국의 고금리— 미국경기 침체— 캐나다 수출부진, 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즉 상대적으로 캐나다 물건이 비싸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늦춘다거나, 포기할 여지가 없는 형편이다. 또, 계속되는 석유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정부석유세 수입의 격감과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소득세수입의 감소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심한 적자에 허덕이던 정부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도저히 재정지출증가를 통한 경기회복의 꾀할 수가 없을것이다. 정부재정적자는 1981년의 22억달러에서 198년에는 130억달러로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가 고려중에 있다고 짐작되는 긴급경제조치중 지금 항간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임금및 가격통제(Wage and Price Control)시책이다. 물가상승 억제에 동조하지 만은 않을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임금인상요구가 높은것은 인플레이션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하에 노동조합들의 극심한 반발이 이는 경우 정부가 이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 의문이다.

임금및 물가통제와는 별도로 정부는 지금까지의 시행하던 내셔날리즘(Nationalism)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어느정도 수정, 국내투자분위기를 적극조성할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시책을 구상중에 있을지도 모른다. 「국가에너지종합계획」은 어느경제전문가를 막론하고 현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시인, 여기에 포함된 외국인투자사업체에 대한 차별대우를 대폭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또 그간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캐나다소유권증가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의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에대한 재검토가 있을법도 하다.

1980~81년 두 해 사이에 장기투자자본 130억달러가 캐나다를 떠났는데, 이것은 1976~79년 4년간의 유출액의 3배가되는 액수이다. 캐나다달러가치의 유치뿐아니라, 장기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투자활동을 증대하기 위해

에너지정책미스로 외국자본 탈출
물가 임금통제, 에너지정책변경예상

미국의 고금리— 캐나다 고금리— 캐나다 투자부진등 불황의 원인에 더하여 위에 든 바와 같이 정부의 비효과적 또는 역효과적이 경제정책, 또 어떻게 "꾸려나가면 풀리리라"는 식의 수수방관, 기회주의적인 정부의 태도(자유당정부는 집권이래 15년간을 이런식으로 경제문제에 임해왔다.)가 한데합쳐 오늘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경제불황을 가져왔다.

정부가 앞으로 1~2개월후에 내놓은 경제시책은 어떤 것일까?

분명한 사실은 미국의 고금리가 계속되는 한 정부가 캐나다의 이자율을 현수준에서 현저히 내릴 전망이 전혀 없다는 사실과, 또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자극책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캐나다의 이자율이 미국의 그것에 못지 않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달러는 사상최저의 수준에서 계속 내림세에 있는데다 또 이런 긴축통화정책에도 아랑곳없이 물가상승율은 12%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금 미국의 물가상승율은 7%로서 이와 같은 물가상승율의 차이가 캐나다수출부진의 또하나의 중요한 원 율이 지금같이 높아서는 정부가 손을쓸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그만 숨통이라도 열어놓기 위하여는 우선 물가상승율을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일단 억제 내지는 줄여놓고 보아야 한다는 것과, 이를위한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은 물가의 주요 구성요인인 임금을 직접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책은 자유당정부가 1976년부터 1978년 3년간 실시해 왔던 것으로써 실시당시 위험스러운 수준에 있던(그당시로는)물가상승율을 2~3% 내리는데 성공은 하였으나, (1975년의 10.8%에서 1976년에는 7.5%로 감소), 이 시책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방법이었는가에 대하여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

최근 온타리오정부가 상급정부직원의 봉급인상의 연6%선에서 억제하였고, 또 연방정부직원의 봉급인상율을 일정한 선에 묶어둘 것이라는 시사를 하고 있는것을 보면, 정부가 이것을 고려중이라는 것이 전혀 근거없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전국노동조합장이 밝힌대로 피고용인들이 1976년의 경우와 같이 순순히 임금인상 서는 이처럼 무너진 뗌으로 물이 흐르듯 쏟아져 나가는 장기자본을 캐나다에 잡아두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 정부라고 이 사실을 모를리 없으나, 위에서 든 정책방향을 따른다는 것은 과거 자유당정부가 쌓아놓은 공든 탑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까닭에 정부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외국인투자유치, 자본유출억제의 필연성을 현실화 할 것인가는 간단히 추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필자주) 이글을 쓰고 난후인 6월14일 트로도수상은 자유당정부의 경제정책의 대폭적인 전환은 없을것이나, 어느정도 다소의 변화가 있을것이라는 발언을 국회에서 했다.

16일자 불황진단 기사중 둘째문단 첫줄 「보다더~」는 두번째 칸 맨첫줄의 잘못이었읍니다.

다음호는 실업인협회 회장 차선겸씨가 본 불황의 진단과 대책입니다.

소프트볼의 연혁과 규칙 2

박재선(리틀야구 진행위원)

◆연령,구장,용구의 규격:

생년(82년경기)	부류	투구거리	베이스간 거리	공
65.12.31이전	미젯드이상	46피트	60피트	12인치
66.1.1이후	밴텀	42 〃	60 〃	12 〃
68.1.1이후	피위	38 〃	55 〃	11 〃
70.1.1이후	스퀴트	33 〃	50 〃	11 〃
72.1.1이후	마이트	28 〃	45 〃	11 〃

뱃의직경 : 2와4분의1인치 이하. 뱃의길이 : 34″ 이하.
베이스 : 15″ 평방, 두께 : 5″ 이하

이 규칙은 캐나다각급소프트볼협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이며 1982.1.1.부로 개정된 것중 중요한것들을 소개하다.

◆용어의 정의:

1.어필 플레이(Appeal Play)…선수 또는 감독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심판원이 판정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항의행위를 말한다. 그 항의는 반드시 다음 투구가 있기전에 하여야한다.

2.보—크(Balk)…주자가 루에 있을때 투수의 부정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각주자에게 1개루를 진루시킨다.

3.베이스 패—스(Base Path)…이것은 베이스와 베이스간에서 그것을 연결하는선에서 양쪽에 각각 3피트씩 어져서 그은(어디까지나 상상하는선임)두 선간의 통로임. 이것이 주자의 평상시의 진로가 된다.

4.뱃팅 오더(Batting Order)…선수명단을 제출할때는 타격순과 선수위치를 함께 명시한다.

5.블럭도 볼(Blocked Ball)…이것은 뱃으로 친 공이든가 또는 선수가 던진 공이 이 경기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선수 또는 심판원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접촉되거나 처리되었을때, 그리고 또 공이 경기장내의 장비, 경기장내의 어떤 부속품등이 아닌 물체에 접촉됐을 때를 말한다.

6.번 트(Bunt)…이것은 타격시 뱃을 휘둘리지 않고 적절하게 탭(Tap)한 것이다. 만약 그 스트라익스에서 번트하려고 하다가 화울(foul)이 되면 타자는 아웃이 된다.

7.데드 볼(Dead Ball)…(9—1)이것은 "인 플레이"가 아닌 상태이며 투수가 공을 가지고 자기위치(8피트반경 원내)에 서있은후 심판원이 "플레이 볼"이라고 선언할 때까지는 "인 플레이"가 되지않는다. "데드 볼"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중요한것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투수가 "보—크"를 범했을때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투구했을때
2)불법타격시 즉 타자의 발이 그 일부분이든 전부든간에 타자박스선밖에 나와 있으면서 공을 마쳤을 경우인데 이때에는 친 공이 화울이든 훼어이든 타자는 아웃이다.
3)화울 비구(fry)를 받지 못했을때
4)공격팀에 의한 인터훼렌스가 발생했을때(일곱가지 있음)
5)야수가 플레이하기전에 타구가 주자,심판원에게 맞았을때
6)심판원이 "노 핏치"를 선언했을때
7)타자가 친 공이 타자박스안에 있는 자신(타자)에게 맞았을때
8)포수의 타격방해시
9)0또는 1아웃, 주자는 1루, 1과 2루, 1과 3루 또는 만루때, 내야수가 평범한 노력으로 받을수 있는 비구(라인드라이브, 번트도 포함)를 받았다가 고의적으로 떨어뜨렸을때
10)투구가 타자를 쳤을때(단 타자가 맞는것을 피하려고하는 노력이 없었다고 심판원이 인정할때는 해당안됨)
11)주자가 베이스를 너무 일찌가 떠나서 아웃이 되었을때
12)심판원에 의한 "타임"선언시
13)브럭트 볼이 선언되었을때
14)개조된 뱃, 규격에 맞지않는 뱃을 가지고 타자석에 들어왔을때

8.훼어 볼(Fair Ball)…화울볼 아닌것인데 열거하면,
1)타구가 훼어지역내에 서있는것
2)1루든가 3루(베이스)에 타구가 맞치한것
3)1루든가 3루를 굴러가는 공이 훼어지역내 또는 그 공간을 통과하는것
4)최초에 떨어진 지점이 1루, 2루및 3루를 연하는 선상 혹은 이 선을 넘는 외야의 훼어지역내에 있는것
5)훼어지역 지면 또는 이 공중에서 선수 또는 심판원 몸에 닿은것

9.포—스 아웃(Force-out)…타자가 주자로 됨에 따라 베이스에 있던 주자가 적절하게 그 베이스를 점유할 권리를 잃어서 다음 베이스에 갈려고 하다가 미처 도달하기 전에 아웃되는것

10.몰수 경기(Forfeited Game)…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심판원은 경기를 몰수할수 있다.
1)경기를 시작하기 위하여 심판원이 "플레이 볼"을 선언한 후 15분이내에 한쪽팀이 나타나지 않는다든가 경기시작을 거부할 경우
2)경기시작한 후 한쪽팀이 경기계속을 거부할 경우
3)심판원에 의해 경기가 일단 중단되었다가 심판원이 경기계속을 위해 "플레이"를 선언한 후 한쪽팀이 1분이내에 경기를 다시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
4)한쪽팀이 경기를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술책을 쓸 경우
5)심판원으로 부터 주의를 받은후 다시 경기규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할 경우

11.화울 팁(Foul Tip)…타자가 친 공이 뱃에 스치고 직접 포수에게 가서 포수가 받은 것. 단 공이 타자의 머리보다 낮은 것에 한함.

12.인휠드 후라이(Infield Fly)…0또는 1아웃, 주자는 1과2루 또는 만루때 타자가 내야수들이 용이하게 잡을 수 있는 훼어 후라이공을 쳤을때(라인 드라이브 또는 번트는 해당안됨)를 말하며 그때 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인휠드 후라이—타자 아웃" 만약에 타구가 베이스라인 근처에 가면 "인휠드 후라이—타자 아웃 훼어면" 이때 내야수라함은 9명중 누구나 내야에 있었던 선수를 말한다.

13.인터훼렌스(Interference)…공격측 선수 또는 팀 멤버가 경기진행중 수비측 선수의 수비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정한것

14.노 게임(No Game)…정규게임이 되기전에 암흑, 강우, 화재 기타 적절한 사유로 주심이 경기를 중지시킨 시합.

15.노 리드 오프(No Lead Off)…주자는 다음의 상태가 될때까지는 자기의 베이스를 밟고 있어야 하며 베이스를 떠나면 아웃이 된다.
1)미위 급이상(82년중에는 69.12.31이전 출생자)…투구하기 위하여 공이 투수의 손에서부터 떨어진 순간까지
2)스쿼트와 마이트(82년중에는 70.1.1.이후 출생자)…투구한 공이 홈푸레이트를 통과하든가 아니면 타자에 의하여 쳤을때, 즉 공이 뱃에 맞는 순간까지

16.옵스트락숀(Obstruction)…수비측 선수에 의한 부정행위를 말하며 공을 가지지 않거나 또는 공을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않고서 주자의 진루를 방해하는것

17.스트라이크(Strike)…투수가 적절한 투구로서 던진것을 심판원이 "스트라이크"라고 선언한것

18.스트라이크 존(Strike Zone)…타자가 자연스러운 타격자세를 취하였을때 타자의 겨드랑 아래부터 무릎위까지

Central Connecticut State College

SUMMER SCHOOL

"동양및 한국학 강좌" 안내

코네티커트주 「뉴 브리튼」시에 133년의 역사를 지닌 본교는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아시아및 한국학강좌를 열기로 했읍니다.
강좌내용이 한국학생들에겐 친숙한 것들이어서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대학공부와 영어강의를 듣는 훈련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여기서 취득한 학점은 미국내 어느대학에서도 인정받을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반학생들도 이 강좌에서 학점을 취득하여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이용할 수 있읍니다.

○A.S.497 : 동아시아 연구(중국·일본), 3학점
6월28~7월30일(월~금, 09 : 50~11 : 30)
○A.S.498 : 한국학 연구, 3학점
6월28일~7월30일(월~금, 08 : 00~09 : 40)
◆등록비 : 6학점에 365불 ◆기숙사비 및 식비 330불
◆강사 : 고광림·유재신·K.H.KIM·J.B.AXENROTH·R.A.WILLIAMS
연락처 : 1615 STANLEY ST. NEW HAVEN, CONN. 06050 ☎(203)827—7465 고광림박사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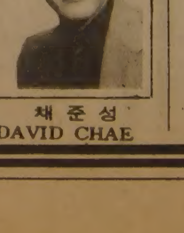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주택·대지·아파트
＊가게·상가·사업체
＊이민이나 면세를 위한 투자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가능

각종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성심 성의껏 노력 하겠아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경 력—
★수퍼마켓 소유 운영2년
★무역회사 소유 운영2년
★부동산업 종사 7년이상
★케네디안 대학 졸업

(416) 497—8900 (B)
(416) 633—7892 (R)



채준성
DAVID CHAE

각종의 리스팅들

절호의 기회 : 편하고 쉬운 사업

⊙50% 정도의 높은 이윤
⊙일요일 휴업과 짧은 시간
⊙물건 주문이나 정리가 쉽고 중노동이 없음
⊙상품 가치하락이나 부패가 없음
⊙아이들 손님이 없고 신사숙녀가 고객
⊙최저임금에 고용인 구하기 쉬움

이상의 여러가지 운영상의 장점을 겸비한 이 사업은 통행인이 많은 특수지역에만 있으며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좀 더 편한 사업을 찾으시는 분들께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읍니다.

CARD & GIFT STORES

1. 장소 : BLOOR E & YONGE (북 아메리카에서 제일 통행인의 왕래가 많은 장소중의 하나) 가격 : $159,900. 스탁 : $20,000 영업시간 : 주 58시간

2. 장소 : BLOOR W & YONGE 가격 : 69,900 or best offer 스탁 : $20,000 영업시간 : 주54시간 개업2년째이며 매상 상승중 1인 운영가능.

3. 미시사가의 바쁜 쇼핑몰. 가격 : $69,900. 스탁 : $30,000. 영업시간 : 주58 2분의1시간. 1인 운영가능

☆기타 : 외에도 가게·햄버거숍·음식점등등의 많은 사업체와 건물·투자처·주택들의 리스팅들이 있읍니다.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627A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8
Phone: 533–7923
533–8344

실업인협회 듀람지부 친선 골프대회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Durham지부(지부장 이영민)는 오샤와 지역 실업인들과 토론토 지역실업인들이 친목을 나누는 뜻에서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많은 회원들의 참가를 바라고 있다.

6월19일(토)오전11시30분에 Kedron Dells Golf Club(주소: R.R.#2 Ritson Rd. N. Oshawa, Ont.)에서 개막되는 이 대회는 오샤와지부 결성후 실시되는 최초의 대외적인 행사로서 본 협회 후원하에 많은 트로피와 부상을 준비했다.

한편 듀람지부회장 이영민씨와 김덕수씨는 본 협회로 차선결회장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듀람지부의 활동상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모체인 본 협회와의 긴밀한 유대관계하에 회원들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상호협조하자고 제의하였으며, 차회장은 듀람지부의 활약을 치하하면서 힘사라는데까지 도울것을 약속하는등 장래문제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집행부 동향〉

◉6월 14일(월)–Store Shelving 및 Equipment전문회사인 J. Michael Sales Ltd의 Sales Manager인 Jonn Davidson은 협회사무실로 회장단을 방문코 많은 실협회원들이 스토아를 오픈하고 있는데, 협회차원에서 딜이 결정된다면 할인된 최저의 가격을 협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싶다고.

◉6월14일(월)–6월 집행부 정기월례회 안건
1)8월2일 제2회 회원친선 골프토너멘트준비 저의
2)회원 비상연락망작성의 건
3)Toronto Sun의 Credit문제의 심각성검토및 불매운동여부 검토

◉6월 15일(화)–Home Pride의 Sales Manager인 Wilf Mclean은 Canada Bread의 16oz. O.K.Bread가 시장에 나온이후 나날이 떨어지는 R & O Bread의 만회를 위하여 집행부와 토의 검토.

◉6월 15일(화)–집행부의 김풍수총무와 정상우재무는 82년도 중반기 감사를 위하여 사무정리 및 미결사항처리로 동분서주.

캐라반 "서울관"에 Pop 225상자 기증

6월18일(금)부터 26일(토)까지 9일간에 걸쳐 50여개국이 참가,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는 "카라반"행사중,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관(830 Bathurst St.)에 협회에서는 225상자의 소프트·드링크를 기증하기로 결정하였다.

카라반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대환씨는 "문화사업에까지 신경을 써서 후원해 주는 실협인협회에 감사하고, 기증받은 팝은 서울관에서 관객들에게 판매 재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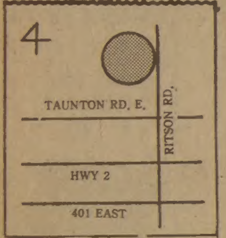
쿠폰업무 써비스 강화

회원들의 번거로운 잡무를 돕는 사업의 일환으로, 쿠폰의 처리대행업무를 강화하고 있는 협회는 이명신양을 사무원으로 증원하고, 광고를 통하여 일반회원에게 협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할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대한 회원들의 호응이 좋아서 연일 그 신청이 답지하고 있어, 이용회원수가 200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아직도 현금과 같은 쿠폰취급을 소홀히하고 있는 회원들께서는 협회를 통하여 청구하기 바란다.

문의사항은 협회사무실 533–7923으로.

골프대회 장소 약도



제2회 한인실업인협회 친선골프대회

일 시 : 1982년 8월 2일 오전 9시
장 소 : Richmond Hill Golf Club
참가자격 : 회원
참가인원 : 150명
참 가 비 : $35(저녁식사 포함)
신청접수 : 협회 사무실(☎ 533-7923)
신청마감 : 1982년 6월30일
준비위원 : 조기연, 백경락, 심태섭

◀시 상▶

Gross Champion(Annual)
Gross 1–5등
Net A조(89이하) 1,2,3등
B조(90–99) 1,2,3등
C조(100이상) 1,2,3등
Nearest to Hole
Longest Drive
Most Honest 기타 부상다수

◇회원각자의 tee-off time을 작성하기 위하여 신청마감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金聖鍾작 어떤 情事 ⑧

"혹시 나를 눈독들이고 있었던게…"

휴식시간에 이어 다시 음악이 시작되었을 때 예감했던 대로 선글라스의 사나이가 문자쪽으로 곧장 다가왔다. 그는 머뭇거리거나 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문자는 선뜻 그 손을 잡지 않았다. 그렇게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렇게 부딪치고 보니 웬지 심히 망설여지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명자가 그녀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문자는 마지못하는 체하면서 앞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사나이가 이끄는 대로 플로어로 나갔다.

실내에는 템포가 느린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자연 그들은 몸을 맞대고 스텝을 밟아나갔다. 사나이는 그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래서 굽어보듯하면서 그녀를 리드해나갔다.

그의 팔이 허리를 휘여감았을때 문자는 빨리듯이 그의 품에 안겨들었다. 도대체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춤추는 쌍이란 없었다. 하나같이 모두가 꼭 끌어안고 놀아가고 있었다.

「안경좀 벗을 수 없어요?」

그가 한 마디 말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먼저 도발적으로 말을 걸었다. 그는 대답대신 그녀를 더욱 바싹 끌어당겼다. 그리고 머리를 수그렸다. 두사람의 얼굴이 맞닿을듯 가까와졌다. 그녀는 어지러웠다. 취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숨이 가빠져왔다. 그녀는 가슴을 비벼대듯하면서 그를 밀었다. 그는 그녀의 다리 사이로 무릎을 밀어넣으면서 그녀의 몸을 떠받치듯 힘을 가했다. 힘이 가해질 때마다 그녀의 입에서는 절로 신음이 터져나오곤했다. 참으려니 자기도 모르게 몸이 뒤틀리는 것이었다.

「이러지 말아요.」

그녀가 낮게 속삭였을때 갑자기 캄캄해졌다. 의외적으로 말붙어진 키스타임이었다.

「뭐라구요?」

그것은 저음의 머뭇거리는 소리였다.

朴 男 그림

「이러지 말아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그녀의 입을 덮쳤다. 그것은 완벽한 기습이었다. 그는 오른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움켜쥐면서 입을 덮쳐놓았다. 그녀는 사나이의 목에 매달리면서 그의 입술을 받아들였다. 사나이의 혀가 입 속으로 굴러들어오더니 그녀의 혀를 유린하기 시작했다. 두개의 혀가 부지런히 얽혀 돌아가는 동안 그의 오른손은 쉴 새 없이 그녀의 가슴을 애무하고 있었다.

다시 불이 들어오자 그들은 입술을 떼었다. 그러나 그녀는 사내의 목에 걸었던 팔을 풀지 않았다.

「초면에 그럴 수 있어요?」

그녀는 곱게 눈을 흘겼다.

「미안합니다. 너무 아름다와서요.」

「수영을 잘 하시던데요.」

「사모님도….」

「어머, 제가 하는것 보셨어요?」

「네, 눈여겨 봤읍니다.」

「난 그런줄도 몰랐지. 혹시 나를 눈독들이고 있었던 거 아니예요?」

「네, 그래요. 만나고 싶었지요.」

「어머나, 나도 그랬는데….」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해버렸다.

「저 같은 여자는 누구예요?」

그들을 열심히 바라보고있는 뚱뚱한 중년 여인을 턱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오다가다 만난 여자입니다.」

「유부녀?」

「혼자살고 있답니다.」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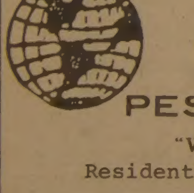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자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한인실업인 협회지정
GLOBE PEST CONTR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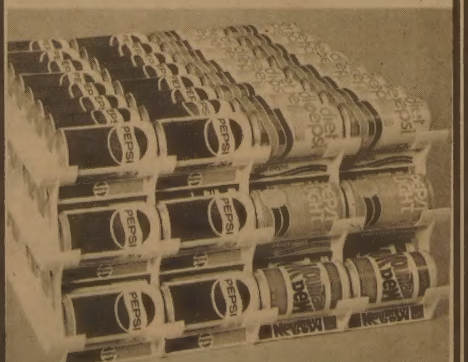
"WE KILL BUGS"
Residential.Comm.Industrial
MONTH FLAT : $8
NO INITIAL CHARGE
※다른조건의 비용청구는 없음.
전화주시면 즉시 달려가겠읍니다
WE'RE SMALL BUT WE'RE GOOD
ASK ABOUT OUR WRITTEN GUARANTEE
GOV'T LICENSED 491-1585 FREE ESTIMATES
789-2527

SKYWAY BUSINESS MACHINES
SPECIAL 30% OFF FOR K.B.A. Members
1. 각종전자계산기 수리
2. PAPER ROLL
(Each Case=100 Rolls)
3. NCR STYLE (수동식)

◆캐쉬레지스타 ◆복사기 ◆계산기 ◆각종타자기
SHARP 3M, MITA COPYSTAR, IBM
SALES–LEASING, REPAIRS & SERVIC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B)675–1295~6, (R)671–0938 김인환

Big Chief®
Beef Jerky
1 BOX(48 PKGS) $13.10
술안주·다이엩용 스낵으로
한번 잡수어 보신분은 꼭 다시찾는
알버타산 순 쇠고기 포!
본인은 금번 본사와 온타리오주 총판권 계약을 맺고 소매상을 경영하시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온타리오주에서는 처음 취급되는 비프 절 一키를 판매중이오니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즉시 배달해 드리겠읍니다.
BIG CHIEF ONTARIO 총판
정세용 244–2483

새로 나왔읍니다



"CANTRAK" 4 CASE CAN UNIT
쉽고 능률적인 POP판매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
좁은공간을 최대한 활용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滯拂 海外진출 업체 名單 공개 處罰강화"

노동부는 12일 해외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늘어남에 따라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인력송출제한과 업체명단 공개, 형사처벌 강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중동등지의 건설업체들이 심한 자금난을 겪고있지만 임금만은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해외에서 공사대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돼 체불이 불가피한 업체의경우 주 거래은행을 종용하여 최소한 임금은 제때에 지불할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임금지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경우 우선 경고장을 발송하고 그래도 체불하면 형사입건을 하는등 강력한 조치를취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해외건설 업체의 체임은 국제실업등 6개업체 근로자 3천9백59명에 대한 19억9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무덥고긴 여름 냉장고등 盛需

더위가 빨리 다가옴에따라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등 여름용 전기용품판매가 급격히 늘고있다。

12일 관련업계가 집계한 5월중 家電제품 국내판매동향을 보면 냉장고의 경우 11만8천81대가 팔려 작년동기보다 14·5%가 증가했는데 이는 4월중 판매량 11만1천7백83대보다 6천3백대가 더 많은 것이다。이로써 올들어 냉장고는 5월까지 33만5천9백33대가 팔려 작년동기보다 17·4%가 늘어났다。

선풍기도 5월중 19만6천8백29대가 팔려 작년동기보다 51·6%, 지난4월의 5만6천6백35대보다 무려 3·5배나 판매량이 증가했다。

실내에어컨역시 5월한달동안 1만6천9백51대가 팔려 작년동기보다 무려 3백90·8%, 지난 4월의 5천1백83대보다 3·3배가 늘어났다。

냉장고나 선풍기는 수출물량도 늘어나고있다。5월중에만 냉장고는 3만6천8백2대가 팔려 작년동기보다 8·7%가 증가했으며 선풍기도 지난4월의 2만4천6백83대보다 7천8백대가많은 3만2천5백30대가 수출됐다。

이에따라 재고품은 냉장고가 4월중의 8만9천1백83대에서 5월말엔 6만3천3백8대로, 실내에어컨이 1만5천5백42대에서 9천1백60대로 줄어들었다。5월들어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등 판매가 급증한것은 계절상품인데다 올핸 더위가 더욱 빨리 다가온때문인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있다。한편 이같은 여름성수품과는 달리 컬러TV나 세탁기는 판매량이 줄고있다。5월중 국내판매량은 컬러TV가 9만2천3백81대로 4월중의 11만6천2백15대보다 2만3천8백34대, 세탁기는 1만7천1백82대로 전달보다 6백55대가 덜 팔렸다。

홈즈、12차 방어

쿠니 13회에 눕혀

【LA支社】23년만의 흑백대결, 백인들의꿈은 13회 종료 8초를 남기고 산산조각이 났다。

프로복싱 WBC 헤비급 챔피언 래리·홈즈 (32)는 12일낮 (한국시간) 라스베이가스市 시저스·팰리스호텔 특설링에서 벌어진 타이틀매치서 백인도전자 제리·쿠니 (25)와 맞서 전광석화의 오른쪽강타로 2회 녹다운을뺏고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한끝에 13회2분52초만에 TKO승, 타이틀12차방어에 성공했다。

이로써 홈즈는 프로데뷔이래 40연승 (30KO)을 기록했다。

이날 WBC 슈퍼·밴텀급 챔피언 윌프레도·고메스 (25·푸에르토리코)는 환·안토니오 (멕시코)를 10회KO로 물리쳐 타이틀 15차방어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무하마드·알리를 꺾었던 WBC헤비급4위 트레버·버빅은 동급3위 그렉·페이지와의 10회전 경기서 판정승을 거두었다。

KO로 승부가 난다는 당초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다。

13회 막판에 홈즈는 강한 라이트스트레이트와 레프트어퍼컷을 쿠니의 머리에 적중시키고 짧은 연타를 퍼부었다。

그로기상태에 빠진 쿠니는 휘청거리며 오른손을 로프에 기댄채 옆으로 쓰러졌다。쿠니의 트레이너 빅토르·발리가 링안으로 뛰어들어 쿠니를 감싸안자 밀스·레인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홈즈의 TKO승을선언했다。

2회종료 30여초를 남기고 홈즈는 왼쪽훅에이은 오른쪽스트레이트로 강타, 쿠니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며 쓰러졌다。

모든 外軍 철수포함 美、레바논協商 方案

【워싱턴11日AP=聯合】데이비드·존즈 미합참의장은 10일 미국이 현재 이스라엘군뿐아니라 시리아및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군의 레바논 철수까지 포함하는 모종의 레바논위기 해결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시사했다。

존즈의장은 이날 밤 미국 PBS방송과의 회견에서『우리는 지금 휴전과 평화유지군 소속 병력을 제외한 모든 군대를 레바논으로부터 철수시키는 문제를 놓고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알렉산더·헤이그 미국무장관은 레바논으로부터의 이스라엘의 철군을 보장할 국제정치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스라엘정부의 고위소식통이 11일 말했다。필립·하비브미중동특사는 레바논 정부지도자들과 레바논의 정치적 장래를 협의하기 위해 곧 베이루트를 방문할 것이라고 이스라엘방송이 11일 보도했다。하비브특사는 다마스커스에서 하페즈·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회담한뒤 현재 예루살렘에 와있다。

不動産·系列社 처분안하면 不實기업 救濟금융中斷

현재 銀行管理업체 41개社 原主에 반환않고 公賣원칙

정부는 부실기업정리시책의 일환으로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이 계열기업및 소유부동산과 기업주개인소유의자산(부동산및 주식)을 모두 처분하지않으면 구제금융지원을 즉각 중단키로 했다。이에따라 2백억원의 구제금융을 지원키로했던 H物産은 자금지원이 이미 중단되었고 1백50억원을 지원한 (주)三湖도 체불노임지원이외에는 부동산및 계열기업을 처분할때까지 더이상 대출을 잠정보류키로했다。

處分스케줄 따라 段階的 지원키로

정부는 또 은행관리기업에 대해서도 해당기업이 재무구조가 정상화되거나 은행관리가 해제될때에는 法定관리업체의 처분 기준에 준해서 원칙적으로 소유주에게 되돌려주지않고 공매처분키로했다。

12일 재무부와 금융단은 구제금융이 특혜화되는 것을막기위해 앞으로 구제금융은 기업소유의 부동산과 계열기업및 기업주소유의 모든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지원키로하고 소유자산의 처분 스케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정부는 부동산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하고 계열기업은 주거래은행이 처분을 알선해주기로 했다。

만일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전에 은행에제시한 재산처분계획에 맞추어 부동산및 계열기업을 처분하지 않으면 구제금융지원은 즉각 중단키로했다。

정부는 또 기업이 부실화되어 은행관리로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소유주에게 되돌려주지않기로했다。

기업이 부실화되어 은행관리로 넘어오면 관리은행은먼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위해 해당기업을 減資조처하여 기업주가 관리기업의 경영에서 손을 떼도록하고 전문경영인을 선임하여, 기업을 정상화시킨후 이를공매키로 했다。이에따라 산업은행관리업체인 大韓重機와 東洋기계및 상업은행관리업체인 (株)産多등 3개업체는 본래소유주를 바꾸어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있다。

현재 경영부실로 인해 은행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은 41개社인데 그중 법정관리업체는 9개社, 은행의관리업체는 32개社로 밝혀졌다。은행별관리업체 현황은 다음과같다。

▲산업은행=원진레이온、고려나일론、동명중공업、수산개발공사、대한중기、동양기계 미진금속、부영공업 ▲외환은행=볼르네오통상、대명목제、삼성제지、제일화섬、풍천화섬 ▲동화기업、정풍물산、천태공업 ▲조흥은행=(주)대화、고려원양、화신전자、평안섬유、신광기업、새서울상사、대동화학、동호산업 ▲상업은행=삼화、조선견직、한국생사、(주)진양、대원화섬、(주)산다 ▲서울신탁은행=서울종합터미널、수개공 ▲한일은행=광명목재、전성실업、대영상사 ▲전북은행=전일상호신용금고 ▲대구은행=경북개발、창성 ▲부산은행=동명산업、천광유지화학

◇全斗煥 대통령이 泰陵선수촌을방문、훈련중인 선수및 코치들과 악수를나누며 격려하고있다。

青瓦臺회담 16일께

3黨대표 내일까지 對策마련

3黨대표가 참석하는 청와대 회담이 오는 16일께를 전후로해 열릴것으로 보인다。

民正黨의 李載瀅대표위원、民韓黨의 柳致松、국민당의 金鍾哲총재가참석하는 이번 青瓦臺회담은 그동안 野圈에서 李·張부부사건에 따른 時局수습방안으로 관계국무위원 引責、경제활성화및 정치의 활성화등을 강력히 주장해 왔고 與黨측에서도 획기적인 民心수습 대책을 요구해온 점등에 비추어 李·張부부사건등 최근있단 사건으로 흩어진 民心收을 수습하는 새로운 轉機가 될것으로 政界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청와대 3黨대표회담을 앞두고 3黨대표들은 黨內의견을 종합、14일까지 청와대회담에 임하는 대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3黨 代表들은 青瓦臺회담에 앞서 사전예비접촉을가질 가능성도 없지않으나 李民正대표는 12일 하오『民正黨이 먼저 제의할 뜻은 없고 야당측으로부터 제의가있으면 만나겠으나 아직 아무런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民正黨은 12일하오李대표위원주재로 中央執行위원회를열고 청와대 3黨대표회담대책을 협의、이번회담에서 野黨측이 제시할 주장에 대한 民正黨의 입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中執委는 權翊鉉사무총장으로부터 3黨대표회담의 추진경위등을 보고받고 청와대 3黨대표회담이 李·張부부사건의 수습책을 중점 논의하기위해 열리기때문에 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李대표가 노력해주도록 요청하는한편 3黨대표회담의 議題가 巨額어음사기사건과 관련한 부분에대해 집중토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가끝난후 金瑢泰대변인은 이날회의에서 위원들은 어음사기사건에 관련된 수습책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관심이 무엇인지 그동안의 소속의원의견 청취등을 생각하면 알수있을것이라고말해 관계국무위원 引責등이 많이 거론되었음을 시사했다。

이날 中執위원들은 이와함께▲경제활성화대책▲3黨대표회담의성과▲私債시장의부조리拂拭방법▲民心수습책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野黨이 주장하는 정치활성화 방안등에 대해선 부정적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金대변인이 밝혔다。

民韓黨은 14일까지 在野元老와 黨소속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주로 근본적인 정치문제에 重點을두어 전의안을 정리할 방침이다。

柳致松民韓黨총재는 이날『民韓黨은 청와대회담에서 時局수습을 위한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 주장할 것이며 全대통령도 이를 국가적차원에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고『현難局을 수습키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국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게 중요한 일로서 이번 회담에서는 여기에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金珍培대변인은 청와대 회담과 관련、『柳총재는 이번 회담에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거론할것으로 안다』면서『특히 정치規규제자문제、구속자 석방、언론기본법및 국회법개정、지방자치제 조기실시등을 통한 民主化추진문제를 중점거론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體育人 응분의처우 講究를"

全대통령、泰陵선수촌 방문

全斗煥 대통령은 12일『체육인들이 사회에서 응분의대우를 받을수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정부가 여러가지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泰陵선수촌을 방문、오는11월 인도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훈련중인 각종목의선수와 코치등을 격려하고『국제경기에서 메달을 딴선수와 코치는 현역에서은퇴한뒤 정부가 취업을 책임지고 알선하는등 생활에 어려움이없도록 충분히 지원할 방침』이라고말했다。

全대통령은 또『과학적인훈련도 중요하지만 모든 운동은 선수나 코치의 정신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특히 선수와 코치간의 호흡일치와 메달을 딸수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의지를 가져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각 종목의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세계를제패해 보겠다는 꿈을 심어주어야하며 올해 인도의 아시안게임도 중요하지만 오는86년의 서울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훈련을 시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이밖에 해외轉地훈련이나 원정경기를 나갈때도 체육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기획을 세우는등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해야할것이라고 당부했다。

太平洋國정상회담

濠首相 "추진協調"

맬콤·프레이저濠洲수상은 지난10일의 시드니에서 열린 太平洋 資源개발 회의에서 全斗煥 대통령이 제안한 太平洋沿岸국가 정상회담에 관해『太平洋정상회담은 추진할 가치가있는 着想이며 우리정부는 현재 이정상회담개최제안을 매우 면밀히 검토하고있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고 12일 駐濠洲공보관이 文公部에 보고해왔다。

이 보고에의하면 프레이저 수상은 濠洲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이회의에서『유럽·아프리카·美洲등 다른 지역들도 이와 유사한 회담을 개최하고있지만 太平洋지역국가들은 단한번의 회의개최만으로 쉽게 결속될수는 없다』고말한후『이러한 모임은 다른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문제들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레이저 수상은 또『이러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위해서는 주도면밀한 기초작업이 필요하며 적절한 태평양연안국가들간의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한후『정상회담은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통한 점진적인 발전이란 전략의 일부분으로 구성하는 유용한 모임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에는 뉴질랜드의 멀둔수상、파푸아·뉴기니의 소마레 야당당수、泰國의 코만부수상、필리핀의 상공장관등이 참석했다。

戰爭과 폐허와 母女

◇한 레바논여인이 아기를 안고 이스라엘침공군에게 점령된 南部레바논항도 티레市의 폐허결을 지나고있다。 【티레11日AP電送=聯合】

中東事態 논의

李外務·워커美大使

李範錫외무장관은 12일 상오 리처드·워커駐韓美대사의 예방을 받고 30분간 이스라엘의 레바논侵攻등 최근의 中東사태등에 관해 요담했다。

이날 구체적인 요담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워커대사는 부친喪을 당해 일시귀국하기 위한 귀국인사를 겸한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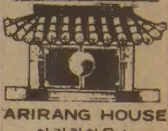
워커대사는 13일 일시귀국할 예정이다。

地平線

우리나라 大入만큼 공정한 제도는 별로 없어보인다。해마다 몇10만명이 응시하는 국가고사를 몇해째 거듭해 온 동안、출제와 채점에 부정이 있었다는 말은 못들었다。재관식 문제를 컴퓨터로 채점하니까 그렇다고는 하겠으나、문교부의 시험관리 능력은 높이 평가할만하다。이점에 대하여는 학생과학부형이 모두 만족하는것같다。▼大入의 공정성은 어느 모에서는 불안과 불신의 산물이다。대학별 전형에 정실은없는가。고교內申에는 정실이없을까。그래서 대학의 본고사를폐지하고內申성적은기계적으로산출하게한다。대학별본고사면접·작문시험등을이면어떻겠느냐는 설문조사에서도반대가68%로 나타난다。그런주관식전형은 정실을날을수도있으니까—。대단한 불신—공정성에의 집착이다。▼이처럼「공정한大入」은 우리학생·학부형의 염원가는 여망이다。大入정책도 이를 좇느라 無不干涉이다。그러자니、깊은 철저한 객관화·기계화·획일화가 있을뿐、공정성을 위해서 교육성이 밀려도 아랑곳을 않는다。그러면서、大入창구앞의「눈치作戰」이비교육적이라고 야단인것이 요즈음 大入개선 작업이다。비교육적일 수 밖에 없는 뼈대를 그냥둔 曰可曰否나 같다。▼앞서의 여론조사 결과는 70.6%가 複數지원반대、先시험·後지원은 찬·반이 반반이다。이를 받아서 문교부는、先시험·後지원을 유지하되、複數지원은 없앨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학 본고사가 없는 상태에서 先시험·後지원을 고집하는 한、「눈치作戰」을 막을 길이 있으랴싶지만、그나마 대학의 전·후기조정은 거의 포기상태라고 들린다(12일字 한국일보1면)。결과적으로 학생의 선택폭만 좁히는 改惡이 될판이다。▼지금제도에서 대학의 전기집중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모든 학생과 대학이 서열화되는 마당에、후기대학의「수모」를 누가감수할 것인가。그렇다면 남은 방안은 대학마다 정원의 일부를「후기」로 돌리는「定員留保」일 것같다。먼저 일정비율의 학생을뽑고、남은정원은 추가모집형식으로 전형하는것이다。대학의 사무부담은 늘지만、학생들의 선택폭은 보장된다。▼그러나 이것도 구차하기는 마찬가지다。개선방안이 구차할수박에 없음은 원래의 제도가 구차하다는 얘기나같다。그 원래의 구차함을 그냥 두어야 하는 까닭을 알수가 없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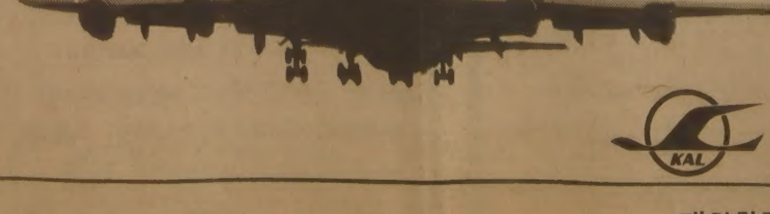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大韓航空만이 每週 16回 韓國으로 出発합니다.

로스앤젤리스↔서울
NON-STOP 運航
每週 3回(水·金·土) B747SP



편명	KE011	KE001	KE015	KE050	KE007
출발일	水金土	火木土日	火木日	月金	火木金*日
뉴욕					23:55
로스앤젤리스	14:00	10:00	23:20		
앵커리지			▽		02:15 03:40
호노루루		12:20 13:20		02:20	
동경		16:10 17:20			
서울	19:00	19:30	06:40	06:50	06:30
도착일	木土日	水金日月	木土火	火土	木土日火

편명	KE012	KE002	KE016	KE060	KE008
출발일	水金土	月水金土	火木日	木日	火木金*日
서울	16:00	18:00	21:30	20:30	19:00
동경		20:00 21:30			
호노루루		09:40 12:10		09:50	
앵커리지					08:30 10:10
로스앤젤리스	11:00	20:20	16:30		
뉴욕					21:50
도착일	水金土	月水金土	火木日	木日	火木金日

▽앵커리지 급유 경유 *KE007, 008 금요일 출발편은 6월1일부터 증편운항

정성껏 봉사하는 우리민족의 날개—
KAL 大韓航空

대한항공 ☎ (416) 862-8250
390 BAY ST. SUITE 720,
TORONTO, M5H2Y2

★ 자세한 것은 대한항공이나 각 여행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여행사 535-6004 ●신세계여행사 536-2155
●제일여행사 535-2377 ●한국여행사 531-4607

이란軍 領土통과허용

이라크、레바논支援위해

시리아에도 이란軍 空輸

對이스라엘 參戰 가능성

◇談笑하는 西方정상들 요세프·룬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0일 헬무트·슈미트 西獨수상, 마거리트·대처 英國수상이 양옆에서 보고있는 가운데 레이건美대통령과 담소하고있다. 【본10日UPI電送=聯合】

【파리·베이루트11日AP·UPI=聯合】이라크는 11일 이란이 레바논에 파견할 이란軍에대해 이라크영토의통과를 허용하겠다고 공식발표했다고 파리에서 청취된 이라크관영 INA통신이 보도했다.

이라크정부대변인은 이날 『이란이 이란·이라크전의 휴전수락을 발표하는 즉시 이라크는 이란이 레바논에파견할 이란군이 이라크영토를 통과할수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발표한것으로 INA통신은 전했다.

이 대변인은『한 국가의군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통과하려면 두나라사이에 평화상태가 존재해야한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또 이란군 수백명을 시리아로 공수했으며 뉴욕의 서방외교소식통들은 이란군이 시리아군을 지원하기위해 레바논전선에 투입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외교소식통들은 이란이 이날밤 터키영공을통한 공수작전으로 수개대대병력을 시리아에 보냈다고 말했다.

공수작전당시 터키당국은 터키영공을 통과하는 이란수송기들이 의약품과 민간용보급품을 적재하고있다는 통보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외교소식통들은 이 이란군 병력이 바로 시리아의 對이스라엘전에 투입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팔과 大規模전투

對시리아 休戰 1시간후

【베이루트·텔아비브11日UPI=聯合】이스라엘지상군은11일 레바논주둔 시리아군과의 휴전이 발효된지 약 1시간후 베이루트국제공항 근처에서 팔레스타인게릴라들과 대규모전투를 벌였으며 이스라엘전투기들은 이날밤 휴전발효를 전후하여 남부베이루트에 3번째 폭격을 가했다.

이스라엘軍과 장갑차들은 이날 대대적인 공중·해상포격의 엄호를 받으면서 베이루트심장부로부터 겨우 8㎞떨어진 베이루트 국제공항남단의 전략도로교차점 장악을 위해 팔레스타인및 레바논좌익민병대들과 전투를 계속중이라고 팔레스타인 대변인이 밝혔다.

베이루트 국제공항남단에서 갈리는 도로중 하나는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최고사령부가 있는 베이루트교외, 그리고 기독교거주지역과 회교도거주지역을 東西로 가르는「녹색선」으로 이어지며 다른 하나는 베이루트 해안으로 이어진다.

이스라엘軍사령부는 베이루트 국제공항근처에서의 전투가 베이루트 남쪽해안에 구축된 이스라엘軍진지에 가한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의 로키트砲공격에 보복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도못써본 레바논平和軍

장비허술 重武裝엔 無能

이·시리아戰 계기「役割」논란일듯

레바논에 주둔해있는 7천명의 국제평화유지군(UNIFIL)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침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

이스라엘군은 평화유지군의 저지선을 뚫고 베이루트 외곽까지 파죽지세의 침공작전을 단행한것이다.

예루살렘의 평화유지군 대변인은『평화유지군은 가벼운 무기로 무장되어있을 뿐』임을 지적하고『관련 당사국의 협력이 없으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수없는 것이 평화유지군』이라고 말하고 있다.

평화유지군은 1978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 후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 유엔安保理가 11개국의 혼성군으로 편성, 투입시켜 현재 에이레의 윌리엄·캘러한 장군의 지휘를 맡고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평화유지군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스며드는 팔레스타인 게릴라의 침투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저지력이 못된다』고 불평을 해왔었다. 레바논 침공작전이 단행될때는 5백내지 7백명의 팔레스타인 게릴라가 평화유지군지역에 집중해 있었다는게 이스라엘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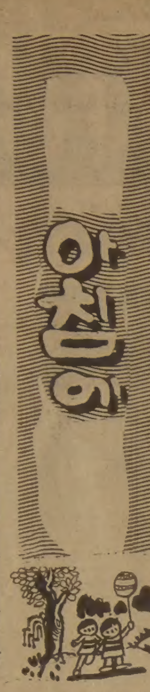
평화유지군측은 이에 대해『유엔지역을 통해서는 PLO게릴라가 결코 침투하지 않았다. PLO 게릴라 침투를 막아주기위해 평화유지군은 이스라엘군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를 냈단』고 맞섰다.

이번 이스라엘군의 침공에 맞서기 위해서는 평화유지군은 1명의 인명피해를 내면서 탱크장애물을 설치하고 교량을 봉쇄하는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알려졌다. 이스라엘군탱크 2대도 평화유지군에 의해 파괴됐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를향해 진격토록 차라리 문을 열어주었다는오해를 면치 못하고있다. 중무장한 압도적인 병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번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계기로 평화유지군의 역할은 뜨거운 논란의 도마에 오르게됐다.【鎬】

◇유엔평화유지군 병사들이 고개를돌려 레바논에 침공해오는 이스라엘 기갑부대의 이동을 주시하고있다. 【AP】



저 높은 사랑의 외길

그늘진 教壇에 意志와 矜持심어줘야

柳炯鎭 〈大韓教聯회장〉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잘 먹이고 잘 가르치는 일이 정치의 要諦이며 名君이 힘쓸 일이라고 일컬어졌었다. 서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같은大哲은 말하기를, 정치의 생명은 이땅에 최고의 善을 실현시키는 일인데, 그것은 훌륭한 교육을 마련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막중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이는 말할나위도없이 각급학교의교사들이다. 이들 교육자에게 의욕과矜持를 갖게 하고, 또 그들이 안심하고 2세교육에 열과 정을 쏟을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행히도, 근자에 우리의 주변에서는 교육과 교육자에 대한 새로운관심과 인식이 일고있는 것을본다.

정부가 금년을 教權確立의 해로 지정한 것이라든가, 또 大韓教聯의 요망에 의하여, 그동안 9년동안이나 중단되었던「스승의 날」을 부활시킨일등은 이와같은 새로운 움직임의 단적인 표현이다.

특히, 이 나라의 언론계가 國家百年大計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하고 있는것은 국가의 앞날을 위하여 참으로 흐뭇한일이 아닐수 없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한국일보社가 제정, 시행한「한국教育者大賞」은 이런 점에서 大書特筆할 일이다.

며칠전 시상식에서 張康在會長이강조하였듯이,『한 나라와 한겨레의 장래는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에 달려있고, 그 가르침의 成敗는 바로 교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28만교직자의 긍지와 士氣를 높이고 진정한 師道의 등불을 밝히자는 뜻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된 동행사의 의의는 참으로 歷史的인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다.

본인은 그동안 심사하는 과정에 참여한 탓으로 많은 감명을 받지 않을수 없었다. 1백20명에 이르는 후보자들 가운데서 26명을 선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모든분들의 정신과 업적이 너무나도 혁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탁하고 인정이 메마른 사회에서도 페스탈로치에 못지않은 진정한 師道의 등불을 얼마든지 볼수 있다는것은 이나라의 앞날이 퍽 밝다는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大賞의 영예를 차지한 仁川 東明국민학교의 朴昌禮여교장과 제주五賢중학교의 高昌先교사는 물론이고, 모든 수상자들이 하나같이 내자신을 바치고 어버이의 사랑으로서 제자들을 위하여 희생적인 봉사를 해왔다고 하는 사실은 날로 각박한 사회로 변모해가는 이 시기에 많은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교육계 일각에 도사리고 있는 갈등과 좌절, 그리고 실의와 패배의식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본인은「한국교육자대상」을 후원한 大韓教聯의 회장이라는 직함때문에 하는 수 없이 심사위원을 甘受했었다. 본인과 같이 극히 평범한 교사가 감히 어떻게 그러한 거룩한 스승님들을 평가하고 더구나 심사할수 있겠는가. 한분 한분의 거룩한 업적서를 읽었을 때 나 자신의 교육자로서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뉘우치지 않을수가 없었다.

막상 며칠 전의 시상식에 참석했을때, 하나같이 수상자 여러분은, 비록 얼굴은 햇볕에 그을르고 굵직굵직한 주름으로 얼룩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 마디는 막일을 하는 노동자 못지않게 굵고 거칠었지만, 어린이들과 민족의 앞날을 염려하는 사랑의 눈동자에서는 예지의 빛을 발했으며 어떻게든지 어린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야 말겠다는 굳은의지와 확의가 그들의 두 입술에 역력히 서려 있었다.

주최자측의 배려로 동반한 부인여러분도, 하나같이 가난에 찌든듯, 야윈 얼굴과 초췌한 모습을 감출수가 없었으나, 끝까지 남편을 받들어서 위대한 교육의 업적을 세우도록 자나깨나 心慮한 모습이 歷然하였다. 참된 의미의 內助의 공은 이런분들을 두고 한 말이리라.

이러한 훌륭한 교육자들이 이사회에 尙存하고 있다는것은 한없이 마음든든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긴급한 과제는 이와같은 바람직한 教育者像을 확산시켜 나가는일이다. 그리하여, 이나라의 국민교육을 명실공히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생명있는 그것으로 승화시켜 나가야한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우리는 경제발전과 산업사회화의 그늘에서 교육을 경시해왔고, 교육자를 푸대접해온 것이 사실이다. 교직이 경시되고 선생님이 홀대를받는 사회나 국가가 결국은 衰殘해버리고 만다는것은 엄연한 역사의 교훈이다. 반대로, 학문과 교육에 힘쓰는 국민은 언제나 隆盛하고 번창하고 부강하게 마련이다.

이제, 사회와 국가는, 모름지기 교육자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시책을 수립해 나가야하겠다. 교육자가 늘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수있도록 그들의 사회적·경제적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국회는, 교육자들이 갈망하여온 제반立法을 추진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하여 주기를 바란다.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의 실현을 비롯하여, 중앙교육위원회의 설치, 單一號俸制의 실시, 교육처우의 획기적 개선,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제도확립등을 현안의 제반 교육입법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은 힘써주기를 바란다.

교육행정은, 문자 그대로 교원들이 보다 나은 교육여건에서 교육에 몰두할수 있도록 서비스한다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종전과 같이, 교육자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교육혁신은 口頭禪에 그치고 말것이며, 또한 민주교육이 실현될 날은 영원히 찾아 오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강조해온 君師父一體의 미덕을 되새겨, 스승의 은혜를 한 시도 잊지말고, 늘존경으로서 선생님을 대하고 배움에 힘써야 할것이다. 언제나 제자로서의본분을 잊지말고, 늘 겸허하고 성실한마음으로 스승의 가르침에 따를 때 자신의 인격이 연마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내자식의 성장과 발전을 돌보는 선생님의 고마움을 잊지 말것이며, 교육자가 하는 일에대하여 가능한 모든 협조를 제공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될것이다. 최소한 정신적인측면에서의 전폭적이고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다. 물론, 일부 학부모사이에서 야기되는, 내자식만을위한 어떤 불미스런 행동은 앞으로는 없어져야만 할일이다.

언론은, 항상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자의 고마움을 국민들에게 계몽토록 힘써주기를 바란다. 이번「한국教育者大賞」에서 밝혀진 것처럼, 그늘에서 자기희생적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거룩한 교육자들로 이 나라의 명맥이 이어져 왔으며, 또 앞으로도 훌륭한 교육만이 밝은 내일을 약속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언론이 되어주기를 강조한다.

우리 모두는,『스승을 생각할 때마다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어 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스승은 우리들정신의 고향이며, 사랑이며, [illegible]』을 한시도 잊지말고, 스승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국민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다.

한편, 우리 교육자는 지난번에 大韓教聯이 선포한 師道憲章의 정신을 교실과운동장에서 꾸준히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하겠다. 그리하여, 제자들과, 학부모들과 그리고 국가와 민족앞에 떳떳한 스승이 될것을 굳게 다짐하지 않으면안된다. 우리들 자신이 스승의길을 실천하지 못한채, 사회에 대하여만 교육자를 우대하라고 요구할수는 없는 일이다.

바라건대, 사회와 교육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해가 명실상부한「教權確立의해」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원한다.

社告

強大國 東北亞전략

포스터博士 초청강연

韓美수교1백주년을 맞이하여 초청 내한하는 미국의 저명한 국제전략가 리처드·B·포스터박사(스탠퍼드大 국제전략연구소장)의 특별강연회가 오는16일 상오10시30분 한국일보社 12층강당에서 열립니다. 漢城大學과 한국일보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강연회의 주제는「強大國의 東北아시아戰略전망」입니다. 많은 청강을 바랍니다.

○日 時:6월16일(水)=상오10:30~12:30
○場 所:한국일보社 빌딩12층강당
○연 사:리처드·B·포스터(S·R·I부설 國際戰略연구소장)
○주최=漢城大學·한국일보社

주최 한국일보社 漢城大學

아랍外相 긴급會談

【튀니스11日AP=聯合】아랍외상들은 12일 튀니스에서 긴급회담을 열고『최근의 레바논 사태를 논의할것』이라고 튀니스에 본부를 둔 아랍연맹의 소식통들이 11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쿠웨이트가 아랍연맹외상회담의 개최를 제의했다고 말했다.

레바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은 이 긴급외상회담에 참석치 않을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아랍연맹 한 대변인은 22개 아랍연맹 회원국 외상들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문제를 토의하기위한 아랍정상회담 개최준비를 위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질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비아는 이스라엘軍의 레바논침공사태를 협의하기위해 24시간내에 아랍정상회담을 개최할것을 요구했다고 리비아의 JANA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레이건 歸國

유럽巡訪 마치고

【워싱턴11日AP=聯合】로널드 레이건美대통령은 11일 열흘간의 유럽순방을 마치고귀국, 이번 여행일부가 완수되었다고 밝히고『미국과 유럽의 우호관계는 굳건하며 미국은 우방은 물론 적대세력으로부터도 다시한번 존경을 받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에 관해 언급, 미국은 중동에 평화를 정착시키기위해 진력하고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反美데모

西베를린서

【西베를린11日UPI·聯合=聯合】레이건미 대통령이 서베를린을방문한 11일 수천명의시위자들이『레이건은 살인자』,『레이건은 돌아가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베를린중심가에서 대규모 반미데모를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대부분 가면과 헬미트를착용한 약 5천명의 반미데모대는 레이건 대통령이 시민환영식에 참석중이던 샬로텐부르크궁을 목표로 행진했으나 약 5㎞지점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861

◇教皇과 갈티에리 歡談 아르헨티나를 방문중인 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11일 레오폴도·갈티에리 대통령과 만나고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11日AP電送=聯合】

메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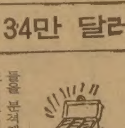
34만 달러

미화 34만달러(약2억4천만원)를 몰래 갖고 출국하려던자가 세관의 X레이 검사에 걸리자 이 거금을 그대로 두고 어디론가 도망쳐버린 사건이 우리를 또 놀라게했다. 이많은 돈을 포기하고 달아난 주인공은 과연 어떤 인물인지? 거금을 손해보는것보다 탄로날것을 더 두려워한 사람의 소행인것만은틀림없다. 은화30닢에 예수를 팔았던 유다와는 비교도 안될 위인이라 할까.

세관에서 달러화가 발각되는것은 이 지폐속에 금속성의 가는 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X레이를투사해보면 그 쇠줄이 잘 나타난다. 위폐를 막기위해 특수가공하여 넣은 쇠줄인데 달러화는 그뿐 아니라 인쇄잉크 또한 특수처리된것이라 잉크로도 쉽게 위폐여부를 가려낼수 있다.

내년에 나올 우리의 새 1만원권 지폐도 위폐를 만들지 못하게 특수처리된다. 지금 통용되고있는 고액권은「형광잉크」와「인광」이 입혀들어 있다. 새로 나올 지폐는「마그네사이트 잉크」를 비롯해서 적외선, 자외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잉크로 인쇄되어 이면에서는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간다.

이런 잉크는 검사장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반응을 이용,〈캐시·디스펜서〉기를 통해 入金이나 出金이 가능하다. 입출금처리가 기계화됨에 따라 은행대중화와 신용사회의 기반확대를 기대할수 있게 된다. 기계가 액면가를 판별하고 그 수량을 세기까지 하므로 내년부터 은행창구업무는 크게 변할것이다.



만약 세관당국이 허술하여 출국자의 휴대품을 잘 검색치 않았다면 또 얼마만큼의 달러가 새나갔을지 모른다. 40만달러를 미국 캘리포니아 농장구입비로 빼돌린일때문에 온국민들을 분격케한것이 바로 어제같은데 그사이에 또 이런 거액외화유출기도가 있었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아무리 새돈을 만들어 화폐위조나 유출을 막으려해도 심성들이 바르게 잡히지 않으면 별효과는없다. 새지폐가 나오기 앞서 5백원짜리 새주화는 이번주말(12일)부터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뒷면의 鶴舞는 우리의「飛翔」을 뜻한는것이라한다. 모두 멀리 높고 푸르게 날개를 펴자.

海外토픽

딸난女人 이혼직면

★中共, 子女1명 制限으로

자녀를 1명이상 갖지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 中共에서는 딸을낳은 여인들이 아들을 바랐던 남편들로부터 이혼을 강요당하는등 심한정신적피해를 보고있다.

山東省의 한농부는 아내가 딸을낳아 아들을원했던 자기의 소망이 일순간에무너지자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했다는 죄목으로 최근 구속됐다. 【北京=AP】

修女교사 兒童학대

★學父母고소로 곧 法廷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피코리베라에서는 요즘 한가톨릭계국민학교의 수녀교사가 어린이들을 무자비하게 구타, 학대한 혐의로 학부형들에의해 피소돼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세인트·힐러리 국민학교 사인 루르딘·소코수녀(노트르담 수도회소속)는 지난해 9월부터 금년1월까지 말을 안듣는 어린학생들을『사기꾼』『짐승』『얼간이』등으로 지칭, 심한 욕설을 퍼붓는가하면 여자어린이까지 사정없이 온몸을 구타하고 머리카락을 낚아채는것은 물론 벽에다 머리를 쥐어박고 구둣발로 발을 짓이기는등『몹쓸짓』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됐으며 이 학교교장 모린·올리터수녀도 보고를 제대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피소됐다고.

재판은 소코수녀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조만간 귀국하는대로 열리게되는데 학부모측은 지역교구청을 상대로 3백2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것. 【피코 리베라(캘리포니아)=UPI】

400만년前 猿人化石발견

美조사팀 이디오피아北部서

이제까지 발견된 인류조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것으로 4백만년전에 생존했던 키 1m 37cm에 침팬지정도의 작은두뇌를 가진 원인(猿人)의 화석유골이 이디오피아에서 발견됐다고 미과학자들이 10일 밝혔다.

美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조사팀은 지난해 가을 이디오피아 북부아와쉬강중류지역에서 원인의 두개골일부와 대퇴골의 화석을발견했다고 밝히고 이 원인은 지난74년 탄자니아와 이디오피아에서 유골이 발견된 루키원인보다도 40만년이나 더 오래전에 살고있었다고 말했다. 【버클리(캘리포니아주)=UPI】

한국에 F4D6臺 美서 販賣계획

【워싱턴11日=聯合】레이건미행정부는 한국군의 방공능력을 강화키위해 한국에 F4D팬텀·제트전투기6대를판매할계획이라고 11일발표했다.

미국방성은 이날 레이건행정부가 자연적 소모로 인해 지난7년전 한국이 상실한 F4D機 6대를 보충해주기위해 1천6백80만달러어치의 팬텀機 6대를 새로이 한국공군에 제공키로 결정한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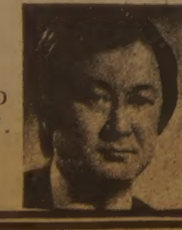
국방성은 그러나 자연소모분에 대한 보충만이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지원장비나 무속품이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성은 이날 F4D기의 대한판매계획에 관해 미의회의 승인을 얻기위해 의회에 이판매안을 제출했다.

이대환부동산

주택, 건물, 프라자, 아파트등이나 사업체를 사시거나 파실때는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용과 친절로 봉사하는 이대환부동산 회사에 맡겨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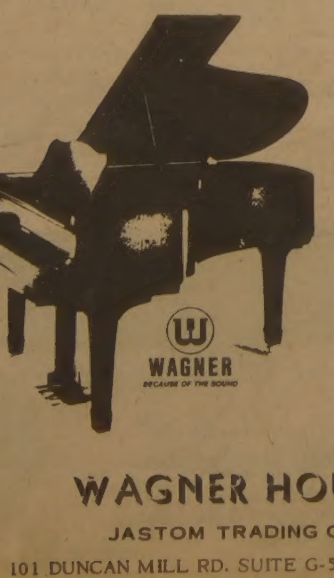
* 버라이어티 스토어
①주매상 $8,000이상 건물(1베드룸)포함 D.P. $120,000 아스킹 $210,000
②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130,000 리스 : 4+5 옵숀 10년
* 도나스·샾
주매상 $9,500 렌트 $3,500 리스 : 3+5+5+5 아스킹 $310,000다운페이 $150,000
* 햄버거·샾
(새로지은 MALL안에 있고 일요일은 쉼) 현재 주매상 $2,000 OPEN한지 3주됨. 좋은 리스에 몇개월내로 주매상 $7,000가능
다운페이 $65,000
아스킹 $169,000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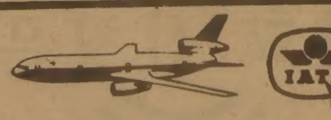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 성 희



IATA

어디로모실까요?

모국방문특별요금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B) 535- 6004
R) 293- 9970

34萬弗든 가방버리고 潛跡

金浦 출국檢査臺서 들통나

空港세관史上 최고액 記錄

홍콩 密輸組織추정 조사중

미화34만달러(한화2억4천만원)를 숨겨출국하려던 승객이 金浦세관의 X레이 검사에서 이사실이 발각되자 그대로놓고 행방을감춰 세관이 수사에나섰다. 남자로보이는 이승객은 중형 삼손 — 나이트여행가방 3개중 2개에 미화를나눠숨겼는데 34만달러의유출기도는 金浦공항세관사상최고의 액수이다. 수사에 나선 세관은 이달러가 재산도피용이거나 밀수자금이아닌가보고 수사중이다.

國內서 發行한 「여행자手票」번호등 수사端緒

12일 金浦세관에의하면 지난10일하오4시30분께공항2층 출국체킹장에서 X레이투시기로 수화물검사를 하던중 金浦세관 金義煥계장과 金성목씨등 2명이 중형삼손나이트가방 2개에 거액의 미화뭉치가 들어있는것을 발견, 옆으로 제쳐놨다.

세관측은 출국비행기가 모두 떠난 밤10시까지 주인이나타나지않아 보관 하고있다가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11일 하오2시께 개봉했는데 한국일보 신문용지에 싼달러뭉치가 쏟아져나왔다.

2개의 여행용 가방에서나온 미화는 ▲1천달러짜리여행자수표(TC) 87장 ▲1백달러짜리 2천5백25장 ▲50달러짜리10장등 모두 고액권이었다.

이가방은 출국체킹장의 4군데 수하물 검사대중 서쪽끝편에있는 KAL 전용수하물검사대에서 발견됐는데 단체여행자들의 여행용 가방틈에 섞여있었다.

세관은 가방주인이 하루중 가장바쁜 시간대인 하오4시를 택했고 일부러 돈이든 가방을 단체여행자들의 가방틈에 섞어넣은것으로 미루어공항사정을 잘아는 사람인것으로 보고있다.

수사에나선 金浦세관은 가방속에서 금괴밀수에 사용되는 주머니가 8개나 달린 조끼가 발견됐고 한국일보외에 홍콩잡지 星友와 홍콩제 T셔츠등을 발견, 홍콩을 거점으로한 밀수조직의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세관은 또 달러에는 금속물질이 들어있어 X레이투시에 잘 걸리는데도 이처럼 거액을 한꺼번에 유출하려했던점으로 미루어 이들이 세관직원또는 검사원들과 미리공모했다가 차질이생겨 발각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이에따라 세관은 홍콩금괴밀수조직의 홍콩인하수인이 유출시키려했던 것으로판단, 현찰과함께 발견된 87장(8만7천달러)의 여행자 수표를 발행받은 사람을 추적하고있다. 세관은 이여행자 수표를 아메리카은행과시티코프은행에 조회한결과 조흥은행 반도지점과 서울 신탁은행본점에서 발행된 사실을 밝혀내 수표의 일련번호를중심으로 발행받은 사람의 신원을 찾고있다.

公告절차후 國庫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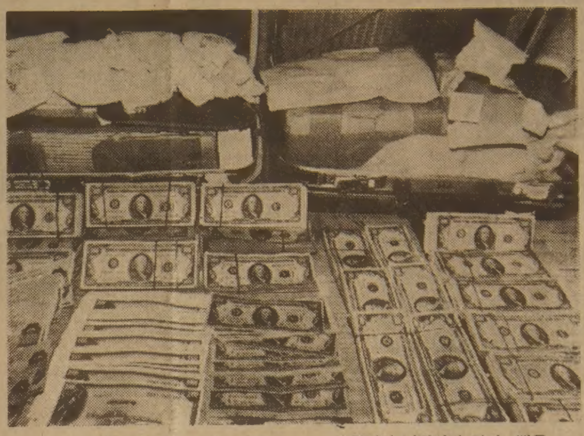
세관은 또 가방속에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쓰고있는 화장지와 객실메모지등을발견, 서울플라자호텔에 투숙했다가 지난10일 호텔을 나간 홍콩인의 명단과 탑승객명단을 조사하고있다.

세관은 홍콩밀수조직으로부터 입국한 홍콩인이 국내조직에 금괴를 전해주고 대금을 받았거나 홍콩의 밀수조직이 직접 입국, 국내조직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유출을 기도했던것으로 보고 있다.

세관은 또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려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울러 수사중이다.

한편적발된 달러가 밀수자금이나, 해외도피자금이나에 관계없이 달아난 가방주인을 붙잡지못해도 검찰은 일단 「성명미상자」를 관세법또는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한뒤 기소중지로 처리하고외화는 증거품으로 압수, 관보에 일정기간 공고절차를 거친후 국고로 환수하게된다.

가방주인이 붙잡혀도 달러가 적법한것임을 입증하지못하는한 법원의 판결로 국고에 몰수된다.



임자는 누구?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백을 열자 빳빳한 1백달러 지폐뭉치와 1천달러짜리 TC(여행자수표) 가쏟아져 나왔다. 34만달러는 金浦세관에서 적발된 유출기도 액수로는 최고를 기록했다.

強盜사건 해결후 李·張부부돈받아

警官 8명 免職조치

거액어음사기사건으로 구속된 李哲熙·張玲子부부집에서 지난해5월 발생한 강도사건의 범인을 잡은 경찰관이 사례비로 50만원씩 받은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 8명이 면직됐다.

서울江南경찰서는 12일 李哲熙·張玲子부부어음사기사건을 수사중인 당국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동경찰서 형사5반장 직무대리 睦榮晩경사(43) 林永男(35)형사 林炳燦(43) 孫泰鍾(28) 洪永瑨(26) 丁基化순경(33) 靑潭파출소장 朴性洙경사(42)등 7명과 부하직원의 감독을 소홀히한 책임을 물어 경무과장 金鍾烈경정(42)등 모두 8명을 권고사직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睦경사등은 형사계강력반 형사6명이 지난해5월19일 새벽2시께 서울江南區淸潭洞2區58의2李·張부부집에 복면을한강도3명이 들어 2·3캐러트짜리 물방울다이아반지 로렉스 손목시계등 1억여원어치의 금품을 털어간 사건을수사, 지난2월17일 범인 한명을잡아 장물을 일부를 회수해 돌려주었는데 당시 범인들은 吳鍾植(31·전과6범) 金男喆(42·전과2범) 崔喆(33·전과2범)등 3명으로 스타킹으로 복면을 하고 집앞 전보대를 타고 침입, 경비원2명과 가정부, 부부등 5명을 이발용 면도칼로위협하고 준비한 스타킹과 붕대로 손발을묶은뒤 현금과 귀금속등 1억여원어치를 털어갔었다.

사건이나자 睦경사등 강력반 형사들은 수사를펴 지난 2월3일 3인조중 1명인吳를검거, 吳가 애인 朴모양(24)에게 선물로준 물방울다이어반지, 롤렉스손목시계등 5천여만원어치의 장물을 찾아냈었다.

張여인은 물방울 다이어반지를 도로찾자 관할 淸潭파출소 소장朴경사에게 「수훈을 세운 경찰관들을 불러달라」고 부탁, 자기집에 초청한뒤 『여러분이 고생을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으니 보답을 해야겠다』며 장학금조로 50만원씩든 봉투를 전달해주었다.

또 파출소장 朴경사는 사건후 순찰근무를 충실히했다는 이유로 지난2월17일 張여인으로부터 역시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또 李·張부부는 사건이발생한 지난해 5월이후 비서나 경비원을 파출소로 보내 『수고가 많은데 라면이나끓여먹어라』며 매월 15만~20만원의 운영비를 보조해주었는데 張여인이 잃어버렸다가 도로찾은 물방울다이어반지는 국내에 하나뿐인것으로 張여인은 이다이어반지를 다시찾는순간 『이것을 다시못볼줄 알았다』며 눈물을 글썽이기까지했다.

李·張부부는 강도사건이후 담장위에 경보등과 전류가통하는 방책을치고 전자감응식 도난방지기를 설치하는등 소란을피워 화제가 됐었다.

低質연탄事件관련 尹錫九피고에 執猶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金文鍚부장판사)는 12일 저질연탄폭리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전동자부 석탄국장 尹錫九피고인(49)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尹피고인에게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1천9백40만원을 선고했다.

尹피고인은 석탄값 인상을 둘러싸고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10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3년에 추징금 1천9백4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高피고 無罪에不服 檢察, 대법원에上告

검찰은 1·2심에서 무죄가선고된 서울龍山區元曉路 尹노파피살사건의 高淑鍾피고인(47)에대해 불복, 1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마담「후」

귀국한 許丁茂의 아내 崔美那씨

熱狂뒤에서 "다치지나 않을까"

한국축구의 기린아 許丁茂(29·現네덜란드 아인트호벤팀)를 네덜란드 사람들은 「후」라고 부른다.

서울에서 열린 대통령배쟁탈 국제축구대회를 위해 「후」와함께 귀국한 「마담·후」崔美那(29·사진)씨는 한때 인기정상의 MC였지만 결혼 2년만에 프로선수의 프로급 아내로 전신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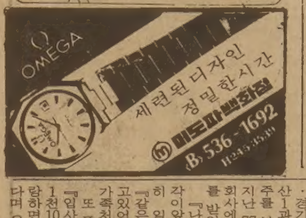
세로로 줄이 쳐진 아인트호벤의 유니폼을 입고 잔디위를 달리는 許丁茂는 문득 野生의 얼룩말이나 표범을 연상케한다. 『후가 문전에서 왼발로 찰 것이냐, 오른발로 찰 것이냐』를 놓고 극성팬들은 내기를 걸기도할 정도로 관중들은 「후」의 동작 하나하나에 열광한다.

그러나 마담·후 崔美那는 단순한 관중의 한사람일수가 없다. 빼앗고 달리고 차는 남편을 둔 그녀는 「후」의 묘기가 나올때마다 혹시 다치지나 않았는지 걱정부터 앞선다고 한다. 부상이라도 당하고 돌아온 날밤은 남편의 상처를 치료하느라고 밤을 새워야하는 입장인 것이다.

또 뛰는 남편의 영양관리를 위해서 슈퍼마키트를 돌며 그 어느주부보다도 세심하게 반찬을 장만해야한다. 프로선수는 육체의 건강 뿐아니라 정서가 안정되지 않으면 능력껏 뛸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짧은 기간의 아내修業에서 이미 터득했다. 異國에서의 적막감을 삭여주고 어루만져 주는 것도 모두 마담·후의 일에 속한다. 프로의 세계는 냉혹하다. 관중들은 프로의 「완벽선」에만 열광한다. 완벽에 미치지 못하는 선수는 곧 잊혀지고 관중들은또다른스타에열광하게마련이다.

許丁茂는 현재 연봉 37만길더(1억1천만원)를 받는 슈퍼급프로선수지만 그의 완벽성은 마담·후의완벽성에 바탕을 두고있다. 許丁茂의 장래의 꿈은 후진양성이다. 마담·후는 남편의 이꿈을위해 뛰어서 번돈을 고국에 송금해서 적립해오고있다.

그녀는 슈퍼스타의 현재와 장래를 함께관리하고 있다. 【朴榮蕃기자】



不況모르는 「종업원 大株主」

「勞使한가족」이뤄 年58% 伸張기록한 大熊제약

大熊제약(사장 尹泳煥·48·서울 江南區瑞草洞1069)은 「불황」을 모른다. 경기가 장기침체되고 李·張사건까지 터져 기업마다 비명이라지만 이회사는 꾸준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것. 그 이유를 회사의 경영진이나 종업원들은 『모든 종사자들이 회사의 주주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한다. 그게 과연 사실일까. 들리는 말로는 전체종업원 7백54명이 자그만치 회사주식의 31.4%나 갖고있고 사장 尹씨와 그 가족들이 갖고있는 주식은 13%에 그쳐 종업원들은 사장 尹씨와 「노사」관계가 아니라 「한가족」「같은 주주」라는 관념에서 일하고있다고 말했다.

모범사원·長期근속때도 주식으로 施賞

그런여건의 덕인지 모르나 오랜 불황과 경기침체속에서 많은기업들이 도산하거나 흔들리고 요즘에도 이 회사는 노사분규 한번없이 지난10년동안 연평균성장률58%, 5년동안에 사세는 5배나 신장했다.

이회사가 사원들에게 주식보유를 권장하기 시작한것은 지난74년. 사장 尹씨가 종업원들에게 저축을 장려하면서 누구나 살수있는 회사주를이왕이면 사원들이 소유하도록 유도했다.

尹사장은 먼저 자신이가지고있던 주식중 2만주를 사원들에게 넘겨주면서 대금은 장기상환토록하고 배당금은 종업원에게 돌렸다.

당시 이회사주는 액면가5백원을 밑돌아 처음에는 종업원들이 별관심을 쏟지않았지만 尹사장은 종업원들이주식을 내놓으면 액면가이하더라도 액면가로 사줬다.

회사측은 이와함께 세금감면혜택을 받을수있는 증권저축제도를 활용했고 모범사원이나 개근사원에게는 주식으로 시상했다. 또 10년장기근속사원에게도 월급의 1백%에 해당하는 주를 보너스로 지급, 차차 많은사원이 주를 소유하게했다.

주를 소유한 사원들은 즐거움을갖고 일을하게됐고 연말이면 배당금까지 받자 다른종업원들도 회사주를 확보하기위한 경쟁마저 일었다.

더우기 이회사주식이 상장시장에서 8백원을 웃돌면서 사기마저 힘을얻었고 종업원들의 사기는 더욱 높았고 매년30%이상의 배당금이 주어지자 종업원들은 또다른 보너스를 받는기분으로 열심히 노력, 사세가 급신장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지난77년 매출액이 35억원에 불과했던것이 81년에는 1백82억원으로 늘어나 5년동안에 5백16%라는 엄청난 성장을 이룩했다. 尹사장은 지난해 정기보너스 4백%이외에 2백%를 추가지급했는데이것도회사주로줬다.

종업원들의 주식지분률은 점차 높아져 현재 전종업원 7백54명이 평균 1천4백주씩, 전체주식 3백36만주의 31.4%인 1백5만5천주를 소유하고있다.

입사8년째인 金正喜양(26·경기城南市上垈院洞공장생산1과)은 현재 1천2백50주를 보유하고있는데 金양은 지난77년말 1년개근했을때 회사에서 특별시상으로 50주를 받았었다.

『나도 회사의 주주라는생각이앞서 회사를아끼고 열심히 일하게된다』는 金양은 『같은과 60명전원이 주를갖고있어분위기가화목하고모두 가족처럼 지낸다』고 했다.

또 포장과 金完淑양(26)도 『입사3년 4개월이 됐지만 1천10주를 가지고있다』고자랑하면서 결혼자금은 충분하다며 웃었다. 【盧基昌기자】

殺害犯은 20代주부

釜山 獨身女피살…"돈 안빌려줘서"

【釜山】속보=釜山청사아파트 독신녀 高良子씨(30)의 살해범 崔金順씨(23·여·일명 羅경아·서울麻浦區阿峴洞15의64)를 12일새벽 서울에서 검거, 부산으로 압송됐다.

부산西部경찰서 형사대는 이날 새벽 서울麻浦區望遠2洞 金모씨(47)집 2층방에 은신중이던 崔씨를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요정접대부 출신인 崔씨는 이날 경찰에서 경기富川에사는 시어머니로부터 백화점 영업목으로 2백만원을 빌어 화투놀이등에 모두 탕진한후 이를 갚을길이 없자 평소 사채를 빌어쓰며 잘 아는 高씨를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간청했으나 거절하는 바람에 살해했다고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사채업자 高良子씨의 살해범으로 검거된 崔金順씨.

"방위산업체 設立한다"속여 1千3百여萬원 詐欺…구속

【釜山】부산동부경찰서는 11일 방위산업체를 설립한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회사설립비용조로 1천3백여만원을 편취한 남동부씨(42·서울江東區盤浦洞539)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79년10월20일 서울 도큐호텔 코피숍에서 최홍준씨(42·부산시東區草梁洞903)에게 자기는 현재 설립추진중인 한미방위산업체 대표이사라며 회사 주식일부와 1억원짜리 주택등을 주겠다고 속여 회사설립용 서류인지대조로 5백만원을 받아챙겼다는것.

남씨는 또 같은 방법으로 80년5월까지 최씨등 2명에게 모두30차례에걸쳐 1천3백67만5천원을 뜯어내 달아났는데 최씨등의 고소로 지난80년7월8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기소중지된후 2년만에 붙잡혔다. 【聯】

뉴저팬火災유족들 損賠소송을제기 15억4천여만엔

【東京12日=聯】호텔 뉴·저팬화재사고로 숨진 일본인9명의 유가족들은 11일 이호텔을 상대로 총15억4천8백여만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東京지방법원에제기했다.

이들은 솟장에서 호텔측이 일본인희생자1인당 5천만엔의 일률적인 위자료외에개인별생활능력등을감안한손해배상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533·2361

釜山 美문화원放火사건 내일 첫公判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첫공판이 14일상오10시 부산지법 2호법정에서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安文泰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사건 관여검사는 부산지검 金과壽공안부장등 6명이며 피고인들의 변론은 黃仁喆변호사등 7명이 맡는다.

아내家出로 是非후 동서殺害하고 도주

【釜山】가출한 아내를 찾아달라고 처형집에 찾아가 시비를 벌이다 동서를 식칼로 몸을 찔러 숨지게 하고 조카에게도 칼을 휘두른 사람이 경찰에 수배됐다.

11일밤 11시20분께 부산진구 伽倻1洞474의2 尹光洙씨(28·정비공) 집에 尹씨의손아래동서 柳在龍씨(35·北區掛法洞455의3·梁山고려제강직원)가 찾아와 1개월전에 가출한 아내 朴在淑씨(34)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강요하며 시비를 벌이던중 부엌에 있던 식칼로 尹씨의 목을 찔러 현장에서 숨지게하고 옆방에 자던 尹씨의 장녀 정희(16) 장남 상식(14) 차남 명식(12) 등 3명을 찌르고 달아났다. 【聯】

免稅油類 공급 農家도 혜택을

【釜山】농기계보급증가로 농가의 유류사용량이늘어나 유류값이 큰 영농부담으로 등장하자 농민들은 현재 어민에게 공급해주고있는 면세유류의 공급혜택을 받을수있도록 해줄것을 바라고있다.

농민들은 또 현재의 유류판매상들이 대부분 영세해 폐업한곳이 많아 유류조달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 일선농협이 유류를 직접판매해줄 것도 요망하고있다.

12일 경남에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경운기5천5백94대를 비롯 분무기·이앙기등 각종 농기계 14만8천6백여대가 보급되어있고 경지정리작업과 영농기계화에따라 농기계보급률은 연간 10%정도늘어날 전망이어서 농기계작동에 소요되는 유류값이 영농에 큰부담으로 등장하고있다는 것. 8마력짜리 경운기의 경우 하루 7시간작업에 경유14ℓ가 소모되고있으며 모내기등 본격적인 영농철에는 하루평균 10시간이상 가동돼 평균 30ℓ씩 소요되고있다.

이렇게 유류값부담이 증가하자 농민들은 현재 어민들에게 공급하고있는 면세유류를 자신들에게 확대공급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면세유는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면제된것으로경유의 1드럼에 일반가격보다 1만3천31원이 싼 4만4천1백69원에, 등유의 경우 1만7천4백16원이 싼 4만9백84원에 공급되고있다. 【聯】

영세민 合同결혼식 1개洞한쌍 年2회

【水原】京畿水原市는 12일 동거를 하고있으면서도 결혼비용이없어 미혼상태인 영세민가정을위해 매년 2회에걸쳐 합동결혼식을 주선해주기로 결정, 오는24일 첫번째합동결혼식을 水原상공회의소회의실에서 許燮水原시장의 주례로 갖기로 했다.

시는 합동결혼식대상자는 고령자와 유자녀가정순으로 1개동에서 한쌍씩 선정키로 했다.

시는 또 결혼예식협회水原市지부가 새마을부녀회 水原市연합회, 미용협회및 기업체의 후원을얻어 신부드레스와 화환·화장요금은 무료로 봉사키로했다. 【聯】

광고 신청은
한국일보사
●일반광고: 최성조
●안내광고(CLASSIFIED) 박경옥
533-2361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537-0432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15% 할인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 (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40周年맞는 「미국의 소리」방송

한국어도 하루 세차례 1시간반씩

「미국의 소리」(VOA)한국어방송이 올해로 방송 40주년을 맞는다。1942년 2월24일 독일어로 처음 전파를 탄 「미국의 소리」는 현재 39개국어로 방송되고있는데 한국어방송도 가장 오래된 계열에 속해 있다。

『미국이 참전한지 오늘로써 79일째가 됩니다。그리고 오늘 이나라는 앞으로 매일 우리는 미국과 전쟁에대해서 여러분에게 좋은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2차세계대전이 한창일때 이렇게 독일어로 시작된 「미국의 소리」방송은 미국과 태평양에서의 전쟁에 대해 참된 소식을 전해왔다。

「미국의 소리」는 워싱턴에 있는 美국제교류처에서 단파로 세계각국에 전파를 발사하고 있다。「미국의 소리」한국어과에는 현재 9명의 한국인들이 일하고있으며 상오6시반~7시、상오8시반~9시、하오10시반~11시 하루에 세차례씩 매일 1시간30분씩 한국어방송을 내보내고있다。주파수는 17、750KHZ、15、215KHZ、11、915KHZ、9、545KHZ、6、110KHZ등 1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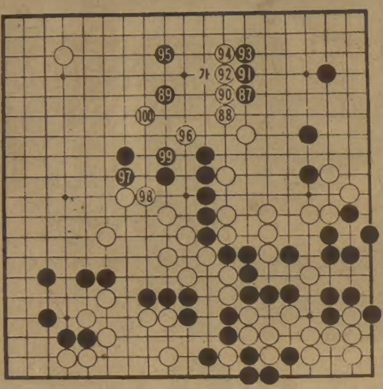
◇「미국의 소리」한국어방송 제작진。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제⑬⑦①名人戰 挑战5番棋

第1局 第9譜 87~100 (각5시간·덤5집반)

白 (挑戰者) 徐奉洙
黑 (名 人) 曹薰鉉



黑87에는 名人의 기백이 넘쳐있었다。우중앙白대마에 선제공세를 가함으로써 여전히 주도권을 장악할수 있다고 자신한 모양이다。

그리고 이자신감은 白88때 黑89로 멀찌이 뛰점에서 더욱 굳어지는 가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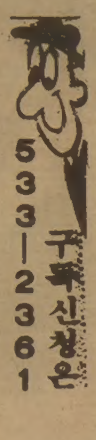
그렇지만 6분간이나 변화를 재확인한 이수는 국후에 상당한 非난을 불러냈다。『89론「가」자리에 두어 그제까지 미개척인채 비어있는 상변 일대를 확보해야 상식적』이라는 것이다。

黑、초비상 自招

도전자는 여기서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고 白90에 41분을 심사숙고했다。이때가 하오7시10분께。白은 4시간40분을 소비했고 黑은 3시간30분으로 꼭1시간의 차가 나있었다。

黑91이하 白94까지 필연의 과정인듯 한데도 피차 신중을 기하는 진행인데 黑은 95로 뛰어 한사코 추적을 늦추지 않는다。도전자는 壽어지라 관을 응시하더니 15분만에 白96으로 급소를 일격했다。감연히 역습을 가한 것이다。

한 名人의낯에 긴장감이 서린다。『역시 모양이 나빴는데。너무…』하며 시계를 흘깃 쳐다보더니 장고개시。23분이나 고생끝에 黑97、99로 보강했다。어쩔수 없었던 것이다。黑89이하 95가 기분에 치우친 수단인때문에 黑은 초비상을 맞이하고 말았다。【一凡】



"허드슨江에 高麗青磁陶窯계획"

日도자기연구하다 고려磁器에 매료

"상감문양에 특히 관심…神秘 풀고파"

韓·美 도예가 교류위해 來韓한 사라·로렌스大미카일·자킨敎授

우리나라 青磁가마가 미국 뉴저지州 허드슨江북쪽에 처음으로 세워진다。이같은 사실은 지난6일 韓美도예학자、도예가교류를 추진하기위해 우리나라에 온 사라·로렌스대학 미카일·자킨교수(62·도자기학과과장)에 의해 밝혀졌다。『미국에는 74년 대학에서 사용하는 미술교과서에 한국도자기항목이 삽입되면서부터 한국도자기붐이 일고 있습니다。특히 신비스런 상감(象嵌)문양에 대해 관심이 많죠。高麗青磁陶窯를 만들려는 것은 미국인의 손으로 그 신비를 풀어보기 위해서입니다。』

◇美허드슨江가에 고려청자가마를세워 한국도공의 魂이 어린 도자기를 구워내고 싶다는 미카일·자킨교수。

자킨교수가 허드슨江가에있는 자신의 땅위에 빠르면가을쯤세울 이순 한국식도자기가마는 올봄 두나라도예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東西예술연구회」(East, West Institute of Arts)가 맡아 운영한다。

이 연구회 회원은 자킨교수외에 미국도예학자인 로버트·대머노트교수(뉴욕시립대)、필립·골드교수(사라·로렌스大)、미국도예가들에 잘 알려진 도예가 青坡 李殷九씨、뉴저지포트리에서「남한」화랑을 운영하는 韓圭男씨(38)등。

자킨교수는 열흘 남짓한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도예가와 도예학자 3~4명에게 회원가입교섭을 벌일 계획。

東西예술연구회는 앞으로▲두나라 도자기학자 도예가들의 연수교류 ▲도자기전시회 및 세미나개최▲영어로 된 한국도자기책자 발간등의 사업을 편다。

도예가교류는 이미 시작되어 미국인 젊은도예가 경기도利川 青坡窯에 와서 도자기를 배우고있고 오는 11월16일~21일 美사라·로렌스대학에서 열리게될 한국도자기전시회에 작품을 선보일 도예가들의 人選이 진행중이다。

『내년여름에는 학생들 교류를 추진해서 사라·로렌스대학 도자기학과 학생들을 이천(利川)、여주(驪州)가마에 데리고 와서 한국도자기를 굽게하고 대신 한국의 학생들을 허드슨江가의 고려청자도요와 우리학교도요로 초청해서 한국·미국자기를 굽게하고 싶습니다。그러나 아직 한국학자나 학교당국과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세부상황은 말할수없군요』

원래 조각가인 자킨교수는 미국도예계에서 20명안에든는 손꼽히는 도예가이자 학자。「흙」을 통해 인간과 자연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도예」는 가장 자연스런「인간문화」(Human Culture)라고 생각되어 조각에서 도예로 전공을바꾸었다고。

"한국의 青磁엔 魂이 깃든것 같아요"

미국동부의 예술창작분야 대학중 명문에 드는 사라·로렌스大에서 세계도자기 역사를 강의하고 있는 그는 한국도자기에대한 관심이 日本도자기를 연구하다가 그 원류가 한국임을알게 된데서 비롯되었다。

『日本의 도요지에 가서 자기굽는것을 배우고 있을때 나를 가르치던 교수를 포함、日本人 도예가들이 한국도예가들의 작품을 무섭게(?) 사들이는 걸 보고 놀랐읍니다。나중에 日本도공들이 임진왜란당시 한국에서 끌려온 한국도공의 후예라는걸 알았어요』

中國도자기에도 관심이 많아 中共의 上海、신안、北京근교의 도요에서 중국도예도 익힌 그는 중국도자기의 경우 국가간섭을 너무 받아「제도적」인 냄새가 나고日本도자기는「상업성」이 지나친 반면 한국도자기는 이런 때가 비교적 묻지않고 옛 전통기법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한다。

그는 특히 한국도공(陶工)들이 자기를 나무를때는 가마에서 구워내는 것이라든가 魂이 깃들지않은 도자기를 여지없이 깨버리는 것등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전기가마에서 구워내고 숫자에만 집착、되도록 많은 도자기를 구워내는 미국인 도공들이 배울점이라고 설명한다。

『앞으로 허드슨江 고려청자가마에서 구워질 도자기에는 이런 한국도공의 魂이 스며들 겁니다。이번나의 방문과 東西예술연구회활동이 日本도자기문화에 가리워져 있던 한국도자기문화를 미국인에게 올바르게 인식시켜주는 계기가되었으면 합니다』그는 梨大에서「미국현대도자기」를 주제로 강의도 갖는다。【崔成子기자】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36>

朴婉緒 作 / 金光培 畫

응달 ⑯

춘자가 가뜩이나 두어시같은 머리를 부득부득 쥐어뜯으며 대들었다。춘자의 그런 발악이 전에없이 오목이의 속마음을 울렸다。

『너 나쁠것 하나도없어。인생이란 별로 대단한 게 아닐거야』

오목이는 조리 안닿는 소리를 응얼거리면서 자신과 춘자를 한꺼번에 위로하려 들었다。

인생이 대단한거라면 바람결처럼 슬쩍 스친 우연이나 조그만 돌부리만도 못한 사소한 사전에 의해 그렇게 휘까닥 휘까닥 국면이 바뀔수야 없지 않겠는가。오목이는 자신의 그런대로 평온무사한 나날이 버스값 몇푼에 의해 전혀 예기치못한 장미빛으로 물들었다가、다시 몇알의 사과와 담배 한갑을 참지못한 식구들의 참을성없음에 의해 얼마나 무서운 절망으로 바뀌었나를 빗대면서 그렇게생각했다。

자연히 얼굴에 분바르고싶고 레이스달린 속옷이 입어보고싶은 나이에 그런것들이 자연스럽게 주어졌을때 그런 것들은 참으로 하찮다。그러나 그 나이에 그게 안주어졌을때、어느순간 일생을 망치고라도 그걸 가져보고싶을만큼 대단한 게 될수도 있다。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게 하찮은 사람이 그게 그렇게 대수로운 사람에 대해 감히 무엇을 안다고 할수있을 것인가?

춘자의 방은 구들목은 발을 못대게 따가왔지만 외풍은 한데부엌 못지않았다。단칸방을 가로지른 나일론줄위에 함부로 벗어건 레이스달린 속옷과 거기 어울리는 야한 원피스、한복등이 쉬지않고 너울대는게 신산스러워보였다。벽에는 화장품회사 달력말고도 남녀 탤런트、가수들의 사진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그 중엔 유모차에 탄 살찐아이의 그림도 한장 섞여있었다。오목이는 그 아이의 웃음을 볼 때마다 맥없이 콧날이 시큰했다。

서랍이 네개 달린 옷장은 틈이 많이벌어져 나일론양말짝이 혓바닥처럼 늘어져있기도하고 한때는 곤충의 날개처럼화사하게 폼이 섰을 여름옷들이 꾸겨박지른채 꾸역꾸역 너불대고있기도 했다。그런 것들이 비명을 지르며 시든 것처럼 무참해 보였다。

그 서랍장 하나가 방안에 있는 가구의 전부였다。깔끔한 오목이는 그게 그모양으로 속의 것을 흘리고 있는게 못마땅했지만 손댈 엄두가 안났다。그건 단 하나의 가구인 동시에 단 하나의 춘자의 프라이버시가 담긴 그릇이기도 해서 삼가는 마음과 한번 손을 대면 무진장 진구덥을 쏟아놓을것같아 지레겁이 나는 마음반반씩이었다。

서랍장위엔 화장품이 즐비했다。화장품에 대한 애착이 유별나 빈병도 버리지 않는 춘자의 성미때문에 그 수효는 실제로 소용 닿는것의 몇배였다。일수계를 타면 큰화장대를 사서 그것들을 제자리에 놓아두는게 그녀의 소원이었다。

제자리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것들은 하나같이 짜푸룩하니 몸을 사리고 교만하게 서 있었다。옷욕 서랍장 옆엔 불룩불룩한 쇼핑백들이 쌓여있고 이불을 개켜놓을만큼 비어있었지만 춘자는 한번도 이불을 개키지 않았다。발끝으로 그쪽에다 밀어놓는 일도 어쩌다가 했다。

대강 그런 것들이 춘자의 방안 풍경이었다。

오목이는 단정을 휘둘러볼 때마다 자신이 그속에 있는 까닭을, 무엇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을까를 곰곰생각하곤했다。그녀는 그것을 알아내야만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416)533·2361

流星의 賦 <408>

李炳注 作 / 李友範 畫

壬辰의 해는 저물어 ⑥

김성일이란 인물—。

누가 뭐라고 해도 홍계남은 김성일을 좋아했다。고집스럽고 엄격해서 때론 버급할 때가 없지 않았으나 지내놓고 보니 그런 감정은 말쑥히 사라지고 그 출중한 덕(德)만이 우러러 뵈는 것이다。

하기야、절대로 일본의 침략이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었다。그러나 김성일의 깊은 마음을 알고 있는 계남으로선 그것으로서 김성일을 욕할순없었다。

정사 황윤길이 일본의 침략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조야(朝野)의 경동은 실로 아연할 정도였다。일 손을 놓고 피난 갈 궁리만 하며 모두들 허둥지둥 했던 것이다。

김성일의 진심은、이러다간 일본의 침략이 있기 전에 나라가 망할 판이라고 판단했다。일본의 침략여부는 불확실한데 그런 발설(發說)로 인한 경동(驚動)은 눈 앞에 나타난 확실한 사실이었기때문이다。뿐만 아니라、명민(明敏)한 사람은 자기의 명민 때문에 속는 경우란 것도 있는 법이다。명민한 눈과 두뇌로서 보았을 때 일본은、얻을 것이란 없고 실(失)만 있게 될 외정(外征)을 감행할만한 사정에 있지 않았다。백년의 난세(亂世)끝에 겨우 평화를 얻어 조금 수월하게 숨을 쉴 수 있을까 말까한 판국에 어찌 화(禍)만을 자초할 짓을 하겠는가 말인가。그런 까닭에 군비를 서둘고 있는 꼴이나、호전적인 언동이나、모두가 이편을 위압하기 위한 일종의 양동행위(陽動行爲)로 김성일에겐 보였던 것이다。명민한 사람일수록 상궤(常軌)를 벗어난 과대망상증을 이해하지 못한다。김성일은 풍신수길을 그래도 백년 난세 끝에 일본을 통일

한 영웅으로 보았다。영웅이 어찌 엉뚱한 망상에 사로잡힐 까닭이 있겠는가。

김성일이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홍계남은 이해했다。그런 이해가 조정의 일각에도 있었기 때문에 벌을 중지하고 도리어 영직(榮職)으로 대접한 것이 아닌가。

홍계남은 그런 점에서도 출중한 사람이었다。사람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명민한 사람이 자기의 명민 때문에 일시적인 과오를 범한 것이 김성일의 경우라면、역시 명민한 사람이니까、그런 사정까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홍계남의 경우이다。

아닌게 아니라 경상도에 그 당시 김성일이 없었더라면 초토가 되고도 풀 한포기 나지 않을 상황으로 황폐화했을지 모른다。김성일이 없었다면 경상감사 김수가 의병장 곽재우의 칼에 맞아 죽었든가、아니면 김수의 농간으로 곽재우가 역적으로 몰려 형사했든가 했을 것은 명백했다。그렇게 되었다면 관군과 의병사이의 알력이 극악화해선 적전(敵前)에 내란(內亂)이 일어나고 말았으리란 추측도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김성일은 엄관(嚴寬)에 무애하여、관사이의 알력、관민사이의 저어、관과 의병사이의 대립을 조절해서 그나마 소강(小康)을 유지할수 있었다。그공으로 해서도 그의 전과(前過)는 보상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이다。

계남이 언젠가 김성일을 만나 이러한 충정을 털어놓고 싶었는데도 기회를 얻지못했는데 이제 석개동을 만나고보니 김성일 본인을 만나뵌 만큼이나 반가왔던 것이다。계남은 상노 석개동을 막료들에게 소개하고、평소의 소회(所懷)를 풀며 밤이 깊어지는줄 모르고 술잔을 주고받았다。

축 개점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불루어 지점

교민사회를 위해
용기와 자신을 더해주는 기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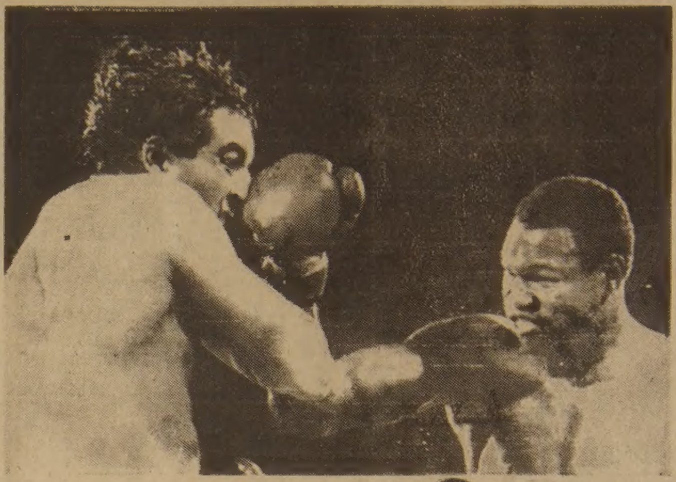
한국관 대표 나옥녀

628 Bloor St. W.

☎ : 536—0290

世紀의「黑白대결」…興行수입 420億

홈즈 TKO勝…개런티도 70億원씩



◇홈즈의 強打명중

흑인챔피언 홈즈와 백인 도전자 쿠니의 대결。홈즈Ⓢ가 쿠니의 안면에 오른쪽 훅을 명중시키고있다.【라스베이거스 UPI電送=聯合】

홈즈 局所맞고 한때 경기중단

쿠니 〃15회까지 싸울수 있었다〃

WBC헤비級 타이틀戰낙수

다음아기 기다린다

◆…타이틀을 KO로 방어한 홈즈는 챔피언 벨트를 그의 머리위로 처들고『나는아직도 챔피언 벨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73년3월 프로 데뷔후 한번도 진 일이 없는 홈즈는『기대했던것만큼 해내지 못해 미안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세계최강의 주먹을 입증한 그는 무패의 기록으로 은퇴한 첫흑인이될지 모른다는소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그것을 생각해본일이 없다. 나의 아내와 가족과함께있고 싶을 뿐이다. 나는 오늘저녁 집으로 달려가 다음 아기가 태어날 9월까지 편히쉬겠다』고 말했다. 그는『쿠니는 위대한 선수다』고 칭찬했다.

아랫배 심한痛症

◆…홈즈는 경기가 끝난후『쿠니가 나에게 결정적인충격을 주지 못했다. 그가 벨트 아래를 때렸을때는 정말 아팠다. 오늘 저녁 급소를 시험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쿠니反則打로 감점

◆…쿠니는 벨트아래 가격(로우·블로)으로 두차례다 주심으로부터 벌점을 먹었다. 9회서 홈즈는 쿠니의반칙타를 국부에맞아 고통스런표정으로 몸을 구부려 경기가 1분가량 중단됐고 쿠니는 반칙으로 2점을 감점 당했다. 홈즈코너서는 벨트아래를 때린것이 9회서만20여차례나 된다고 불평. 쿠니는 11회서도 급소를 때려 1감점됐다.

12회까지 채점을 보면 두안·포드와 데이브·모레티부심은 113-111로, 제리·포드 부심은 115-109로 3명모두 홈즈우세였다.

13회에 경기를 중지시킨것은 밀스·레인주심이 아니라 쿠니의 트레이너 빅터·발리였다. 발리는 쿠니가 13회에 로프에걸쳐 넘어지자 링으로 뛰어올라 주심에게 경기를중지시켜줄것을 요청했다.

경기가끝나자 쿠니는 팔을 로프에기대고 멍하니 10분가량 앉아있었는데『미안합니다』『미안합니다』만 되뇌이며 울었다. 쿠니는 의사의간단한진단을받고 밸리병원으로 급송되었다.

트레이너 無斷진입

◆…쿠니는 발리 트레이너가 경기를 중단시키자『경기를 중단시키는것을 원치않았다. 경기가 중단됐을때 나는 아쉬웠다. 나는 15회까지 갈수있었다』고 털어놨다.

발리 트레이너는 쿠니가 더이상 상처를 입지않게 하기위해 경기를 중단 시켰다고 밝혔다.

쿠니는 링을 떠나면서 링사이드에 있던 그의 어머니를 알아보고『어머니 미안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읍니다』고 말했다.

◆…이날 밀스·레인 주심은 쿠니의 트레이너가 13회에서 주심허가도없이 링안으로 들어왔던 사실을 지적, 네바다주 경기규정에따라 실격패가 선언돼야할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눈 7바늘 꿰매야

◆…쿠니는 6회에 홈즈의 연타를 맞고 왼쪽눈언저리에서 피를 흘렸는데 6~7바늘을꿰매야하는부상이었다.

興行사상 최고수입

◆…이번 타이틀전 총수입은 역대 프로복싱사상최고인 4천8백만달러 내지 6천2백만달러(한화약 4백20억원)로 추정되고있는데 종전 최고흥행 수입은 웰터급타이틀매치인 슈거·레이·레너드와 토머스·헌즈의 대전으로 3천7백만달러(한화약2백60억원)。홈즈와 쿠니는 이번대전서 각각 1천만달러의 개런티를 받게된다고 흥행사가 밝혔지만 실제로는 각각 7백만달러 안팎이라는소문。

豫想評적중시켜

◆…타이틀전에 앞서 예상평은 9-5로 홈즈우세였는데 그대로 적중。

대전에 앞서 홈즈는 쿠니가「영광을 얻은」아마추어라고 혹평하고 쿠니가 갑자기 인기를 얻은것은 매스·미디어가 만들어낸 인물이기때문이라고 비꼬았다.

키·체중 쿠니우세

◆…계체량서 나타난 챔피언 홈즈의 몸무게는 96.4kg. 도전자 쿠니는 102.2kg으로 쿠니가 5.8kg더 무거웠다. 키도 쿠니가 2m로 홈즈 보다 7cm6이 더 컸다.

링사이드 42萬원

◆…타이틀전이 벌어진곳은 시저스·팰리스호텔 주차장。주최측은 3만2천5백명을 수용할수 있는 특설링을 마련했는데 입장권은 거의 매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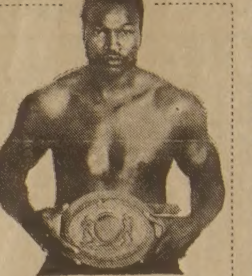
링사이드 입장료는 6백달러(한화 약42만원) 가장싼자리는 50달러。

쿠니론 最長라운드

◆…쿠니가 이번 타이틀전까지 가장오래싸운 라운드는 8회전。13회전은 쿠니로서는 처음이다。지금까지 26번의 경기서 싸운 총라운드수는 1백라운드。그는 한게임당 평균 4.2라운드를 뛴셈.【이상=聯合】

◇홈즈 타이틀전기록

	상대선수	결과	비고
78·6·9	노턴	15판정승	타이틀획득
11·10	에반젤리스타	7회KO	1차방어
79·3·23	오카시오	7회KO	2 〃
6·22	위버	12 〃	3 〃
9·28	세이버스	11 〃	4 〃
80·2·3	자논	6 〃	5 〃
3·31	존스	8 〃	6 〃
7·7	레둑스	7 〃	7 〃
10·2	알리	11 〃	8 〃
81·4·11	버빅	15판정승	9 〃
6·12	스핑크스	3회KO	10 〃
11·6	스나이프스	11 〃	11 〃
82·6·12	쿠니	13 〃	12 〃



◇링誌가 기증한타이틀벨트를 허리에 두른홈즈。

쿠니、22년「黑人牙城」깨지못했지만…

헤비級 興行에 活氣예고

공격력 單調로와 홈즈에 위협못줘

60년6월 백인 잉게마르·요한슨(스웨덴)이 흑인 플로이드·패터슨(미국)에게 5회 KO패하여 세계 헤비급 王座서 밀려난이래 22년、흑인 독주의 헤비급 정상판도에「백인시대」를 펼치려던 꿈은 또다시 좌절되고 말았다.

12일의 홈즈-쿠니 대전은 알리 退場이후 가장큰 관심을 모은 빅·카드였으나 경기내용도 예상했던것보다 훨씬 박진감이 있었다.

美國 권투전문가들은 지난 75년10월1일 마닐라서 열렸던 알리-프레이저 숙명의대결(알리14회 KO승)이후 가장 드라마가 풍부했던 경기였다고 분석、흥행규모 5천만달러의 이번대전을 계기로 그동안 침체했던 헤비급 흥행이 활기를 보이게 되었다고 밝히고있다.

홈즈의 승리는 침착하고노련한 경기운영과 위력있는레프트·펀치에 의한 작품이었다.『매스컴에서 만들어낸「急造된 도전자』라는 혹평을 받았던 쿠니는 도전자다운기세로 밀어붙였으나 기술이단조롭고 결정적 한방만을믿고 대시했다가 상대의 정확한카운터·펀치로 계속 충격을받아 끝내 항복하고말았다.

마이크·위버가 WBA 타이틀을 갖고있지만 홈즈는쿠니를 물리침으로써 세계최강의 주먹을 증명해주었다. 현재 헤비급서 상품가치를 인정받고있는 선수는 제임스·틸리스、마이크·독스、레온·스핑크스、게리·코에체、그렉·페이지、트레버·버빅、존·데이트정도인데 홈즈의 타이틀을 위협하기에는 미흡하다.

72년 뮌헨올림픽파견 미국대표 최종선발전서 백인유망주였던 듀안·보비크에게 패했던 홈즈는 78년6월9일 WBC챔피언이된이래 12차 방어전에 성공、4년간 정상을 지키고 있다.

헤비급흥행부진을틈타 슈거·레이·레너드、마빈·해글러와같은 인기선수들이 세계권투계를 지배해왔는데 야심많은 장사꾼인 돈킹은 헤비급흥행을 부채질하여 큰돈을 벌자는 속셈이 있는것같다. 최고인기선수인 웰터급 통합챔피언 레너드는 지금망막박리수술후 쉬고있다.【金仁奎기자】

월드컵蹴球 내일개막

스페인서 24팀出戰 아르헨·벨기에 첫판激突

【마드리드 12日 聯AP=聯合】축구의 제전 제12회월드컵대회가 14일새벽3시(한국시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전대회우승팀 아르헨티나와 유럽의 강호 벨기에의 개막전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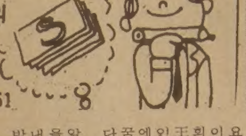
스페인 14개도시 17개경기장에서 7월11일의 결승전까지 약1개월간 계속될 이번대회에는 종전과는 달리 본선진출팀이 16개팀에서 24개팀으로 늘어났다.

바르셀로나 노우·캄프경기장에서 벌어질 아르헨티나와 벨기에의 개막전에는 환·카를로스 스페인국왕부처와 스페인의 초청을받은 세계각국의 유명인사들이 참석하며 전세계 수억축구팬들이 TV를 지켜보게 된다.

개막전은 지금까지 무승부로 끝나는 예가 많았으나 화려한 개인기를자랑하는 전대회챔피언 아르헨티나와 힘을 바탕으로한 유럽의 신예 벨기에는 적극적인공격으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호언하고 있다.

아르헨-벨기에전의 최대관심사는 지난대회에 부상으로 출전하지못했던 아르헨티나의 스타·플레이어 디에고·마라도나(21)가 出場할수 있을 것이냐에 쏠려있다.

광고문의



533·2361

할렐루야、泰꺾고 4強에

대통령盃축구

전반22분 吳必煥 先制골

2-1

브라질은 西獨격파

【淸州=安泰煥기자】한국의 할렐루야는 12일 淸州서벌어진 제12회 대통령배 축구대회 8일째 B조 경기서 泰國을 2-1로 제압, 3승1무로 4강에 진출했다.

브라질은 후반2분 루이스·카를로스가 선취골을 올린후 35분 아루투루가 추가골을성공시켜 西獨레베쿠젠을 2-0으로 격파, 2승1무를 기록했다. 브라질은 말레이지아와의 경기를 남겨놓고있는데 브라질이 이기면 3승1무로 한국과동률을 기록, 골득실차로 B조1、2위를 가리게된다.

한국은 이날 전반22분에 첫골을 따냈다. 金泰煥이 泰國수비1명을 제치고 오른쪽을 돌파하여 문전으로 센터링, 吳必煥이 헤딩으로 선제 1점을 올렸다.

◇제8일 전적

◆B조

브라질 2 (2-0, 0-0) 0 레버쿠젠
(2승1무) (3패)

할렐루야 2 (1-0, 1-1) 1 태국
(3승1무) (1무2패)

眞德、美에大敗

존스컵 국제농구

제6회 존스컵쟁탈 국제여자농구대회에 출전한 여자농구2진 眞德팀은 12일 美國과의 경기서 86-66으로 패했다고 선수단이 알려왔다. 이날현재 美國、캐나다、澳洲가 3연승으로 선두를달리고있다.

吳大錫 첫 사이클 히트

프로野球 三星、최하위三美에 20-1

【釜山】프로야구출범 첫사이클히트가 나왔다. 12일구덕운동장서 펼쳐진 三星라이온즈와 三美슈퍼스타즈 경기서 三星3번 吳大錫(22)이 1회초 3루타、3회초 2루타、5회초 좌전안타、6회초에 홈런을날려 영예의 첫사이클 히트를 기록했다.

吳는 이날 1회초 三美선발 金在峴으로부터 2타점우월 3루타를 때려뒤 3회초에는 구원투수 印浩鳳에 좌중간을 뚫는 2타점 2루타를 얻어냈다.

이어 5회초에는 좌전안타를 날려 홈런만을 남겨 놓은채 사이클히트를 넘보게 됐다.

吳는 6회초 4번째 타석에서 4번째 구원투수로 등단한 韓尙演을 공략, 우중월 투런 홈런을 기록했다.

◇12일전적

◆부산

삼성	702	052	022	20
삼미	000	010	000	1

▲홈런=吳大錫(6회·2점) 鄭鉉發(9회·2점·이상삼성)

◆광주

롯데	000	000	000	0
해태	101	000	00×	2

【聯】

팝토픽

「에버니·아이버리」4週째 톱

美 텐톱팝 블랙하츠의 新曲9位로

★…폴·매커트니와 솔뮤직스타 스티비·원더가 부른 화제의 노래「Ebony & Ivory」가 연4주째 미국 싱글팝레코드차트의 톱을 고수하고있다.

2위는 지난주4위였던 레이·파커·주니어의「The other Woman」이 뛰어올랐으며 지난주 2위였던 리크·스프링필드의「Don't talk to strangers」는 5위로 밀려났다.

「I love rock'n roll」로 인기를 모았던 존·제트와 블랙하츠의 신곡「Crimson & Clover」가 9위로 부상하는등 이번주 텐톱팝에 새로 랭크된 곡은 2곡.

한편 컨트리웨스턴 싱글차트의 톱은 지난주와같이 T·G·셰퍼드의「피날레」가 지키고있다.【AP】

★…그룹「매드니스」의「House of fun」이 지난주 1위였던「Only you」를 제치고 이번주 영국싱글팝레코드차트의 톱에 올랐다.

이곡은 英國내에서 방송을 통해 널리 보급됐었다.

또한 최근에 부상되기시작한 뉴웨이브의 기수 소프트셀의「Torch」등3곡이 텐톱팝에 새로 랭크됐다.【AP】

◇싱글 팝 베스트10

▲1(1)「Ebony & Ivory」(폴·매커트니&스티비·원더)
▲2(4)「The other woman」(레이·파커·주니어)
▲3(3)「I've never been to me」(찰렌)
▲4(6)「Don't you want me」(휴먼·리그)
▲5(2)「Don't talk to strangers」(리크·스프링필드)
▲6(5)「867—5309 Jenny」(톰·투톤)
▲7(9)「Heat of the moment」(아시아)
▲8(10)「Always on my mind」(윌리·넬슨)
9(11)「Crimson & Clover」(존·제트&블랙하츠)
▲10(14)「Rosanna」(토토)

종교서관
535-1920
서적판매및 대여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스포츠短信

韓電결승진출

서라벌旗실업야구

제4회 서라벌기쟁탈 실업야구대회 3일째 준결승전이 12일 大邱시민운동장에서 열려 韓電이 15안타를 퍼부어 6안타의 韓一銀行을 12-4로 대파하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제3일준결승

한일은행	000	001	003	4
한전	012	221	40×	12

▲홈런=朴海成(6회·한일)

◆社會人검도 合同연무회

◆국제사회인검도 한국구락부(회장 申正一)는 韓·日합동연무회를13일 하오4시 YMCA 체육관서 갖는다.

이번 연무회에는 日本측에서 야마모또(山本浩介)회장과 오오우라(大浦芳彦)8단등 14명이、한국측에서는 정태민 8단등 30명이 참가한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교회안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 : 30 오후 2 : 00 영어설교 오후1 : 3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오후예배 2 : 00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 8 : 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 : 30 수요예배오후 7 : 30 영어예배 오전10 : 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 : 30 주일 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 : 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1 : 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 : 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 : 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 : 00 주일오후 1 : 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 : 30 수요오후 7 : 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 : 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주일오후 1 : 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영어 1 : 00 주일성경 1 : 00 주일예배 2 : 00 수요예배 7 : 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 : 30 4 : 00 수요오후 7 : 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 : 30 수요저녁 7 : 30 금요저녁10 : 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자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8 : 00 주일오후 4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 : 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 : 30 금요예배 7 : 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응출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7 : 30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636-1724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 : 00 성경공부 2 : 20 금요오후 9 : 00	502 Bathurst	961-8361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83 Power St.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 : 00 주일오후 4 : 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 : 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 : 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 : 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T. V. 예배 8 : 30~9 : 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 : 30 예배 3 : 00 주일학교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2시반 영어예배 1 : 30 새벽기도 6 : 00 (오전)토, 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전화 : 691-6768
곽 덕열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전화 : 259-1585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 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건학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1-2311 조 의 문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철

노스 · 욕 시보레
○. 시보레, 올스모빌, 각종 중고트럭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부동산(매매)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김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 의 사

장 의 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할인우대
이경배,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 · 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경험이 2년정도 되는 분으로 한국자개에 관해 조예가 있으신분 구함(시간당 $5.00)
전화 : 665-8233

혼자 계신 할머니 방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서쪽지역.
전화 : 245-6217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Store Manager구함 (경험요망)
Downtown 지역
전화 : 368-8138

Donut Shop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함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월~금)
전화 : 531-2689

Canadian 남성(Mid 30's)으로서 친구가 되어
주실 매력있는 한국여성을 찾읍니다.
오후 6시이후. 전화 : 787-3302 (David)

동양, 서양 음식점 동업기술자 구함.
7월1일부터 배달도 할예정. 운전면허증 있는 젊은사람
전화 : 274-7010 (Mr. You)

주방헬퍼(남자)구함
628 Bloor St. W.

경험있는 가게 헬퍼 구함(유경험자)
미시사가 론·파(Lorne Park)지역.
전화 : 278-8101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구 혼

결혼상담 , 직업소개(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884-5573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일은행	865-0456

매매및 양도

Restaurant, Tavern, Hotel & Drive in Burgers at 쎄인캐서린, 나이아가라
1)좌석20개와 17개. 15년리스, 식당파매번은 다운타운에 좋은 위치에 있음, 좋은 가격.
2)28개의 Unit가 있는 호텔(나이아가라 폭포), 좋은 가격.
3)HWY3에 있는 18에이커의 상업대지 급매. (Crystal 과 Fort Erie가는 길임) 플라자나 Drive in Burger, 도너츠·숍지역으로 적당, Traffic이 많은 HWY3 교차로 Gas Pumps있음. 더자세한 문의가 있으신분 1-892-2089 또는 657-1722(오후5시이후·토론토)
NICK KARAN R·E. BROKER

경쟁없는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Tuek Shop)
주매상 : $3,000이상(꼭 관심있으신분 내방 바람)
위치 : 114 Forsythe St.(Oakville) 전화: 842-2917

자동차 급매. 75년식 벤츄라 4 Dr.
P.S./P.B Auto-Trans. 260V8
전화 : 746-4289 Mike

Variety Store Special !
위치 : Oshawa Main St. 렌트 : $700
넓이 : 1250 sq.ft. 주매상 : $4,000 리스 : 6년
가격 : $39,000 + 스탁 (전부 현금요구)
9 door working cooler와 3 Bed Room Home 포함.
Bagot Realty Inc. Realtor.
1-579-4010
after hours, Call Frank Magnus 683-8154

모든 면허가 나와 있는 Restaurant(Tavern) 급매
중국음식과 한국음식을 겸해서 할수 있는 좋은 장소임.
매우 좋은 조건의 Rent와 Long Lease. 좌석: 156석
위치 : 21 Vaughan Rd.
Ask Paul or Ivan 656-9503

야마하 피아노 스튜디오 싸이즈
(STUDIO SIZE)
전화 : 766-8849 Mr. 문

성업중인 세탁소 매매.
465 Vaughan Rd. Tor.
관심 있으신분 내방 바람.

호텔, 모텔, 타번(술집) 사업매매에 관심이 있는분.
전문적인 호텔, 모텔, 타번등의 많은 비즈네스를
갖고 있음. 전화 : 223-1600 (Mr. 캐비츠)

Variety & Hardware Store.
넓이: 2,000 sq.ft.(큰 Plaza안에 있음)
리스: 4년+5년, 렌트: $1,700(Monthly)
주매상: $9,000 이상 아스킹: $100,000+스탁
361 Carrville Rd. Unit 1-2, Thornhill, Ontario
(Hill Crest Shopping Mall 옆)

Milk & Grocery Store 급매
주매상: $4,500 가격: $43,000+스탁, 렌트: $1,000
936 College St.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r. 손

매상이 계속 늘고 있고 주위에 경쟁없는
Variety Store 사정상 급매. 주매상: $3,500
전화 : 239-7267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소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364-0984 REMA FURNITURE

번화한 관광지역 안에 버라이어티 스토아
성업중임.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음)
넓이 : 2000 sq.ft., 넓은 Parking장 있음.
아스킹 : $139,000 + 스탁. 년 순이익 : $46,000
그외에 2개의 아파트먼트로부터
일년 수입 약 $5,100
Irven DeGraw
691-6111 or 1-705-325-6193
Royal Trust Real Estate, Realtor.

2층 살림집 포함한 Downtown에 위치한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
전화 : 769-3265

Variety & Cosmetic 급매.
절호의 챤스, Stock만 인수. 또는 Manager를
채용할 의사도 있음. 전화 : 654-4709

Store 장비 팝니다.
캐쉬 레지스터, Scale(저울), Shelf 등등.
전화 : 249-9773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건강상 급매코저 함.
(일요일 문닫음) 주매상: $4,000 리스 4년반+5년옵션
전화 : 757-9410

대단히 좋은 거주 지역안에 오랜동안
성업중이던 큰 Variety & Smoke Shop (in Etobicoke)
사업을 크게 일으킬수 있는 좋은 기회임.
Stan Konarzycki
전화 : 236-1871, 622-2365
Royal Trust Corporation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다른 사업관계로 매우 성업중이며 대단히 바쁜
지역의 꽃가게(Retail) 매매. 주변에
Free Parking도 가능함.
넓이 : 3,650 Sq.ft.
전화 : 1-634-9679 John
(오후 6시 이후 연락바람)

1) Somke & Gift Shop
주매상 : $5,000. 리스 : 5년. 렌트 : $660
아스킹 : $50,000.
2) Fast Food Take-out Business
주매상 : $5,000. 주5일 Open. 바쁜 네거리에 위치한
Office Building 내.
리스 : 1990년. 렌트 : $830. 아스킹: $225,000
3)번화한 공장지대에 위치한 드라이브인 햄버거·숍
주매상 : $8,000. 리스 : 4년+옵션. 렌트 : 1,700. 아스킹 : $350,000
A. E. LePage (Ontario) Ltd.
Tel: 741-9170 (Mrs. Woo)

Bungalow for Sale (Private Sale)
써브웨이에서 가까운 에그린톤과 베더스트
지역. 7 룸, 큰 리크리에이션 룸, 다용도실등.
관심 있으신분 오셔서 보십시요.
전화 : 783-7954

Franchise(후렌차이즈)
영구적인 안정된 사업체
881-8230 Mr. 윤

Variety Store(Whitby Shopping Mall 센터)
가격: $39,000 주매상: $4,500 렌트: $1,100
3년리스 + Negotiation 전화: 1-579-4507 Mr.Lee

전망좋은 밀크스토아 매매.
휜치×베더스트 지역.
전화 : 222-5370

오타와 지역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함.
전화: 1-613-238-3837 Mr. 정

Hardware & House Ware Store
높은 이익과 낮은 Rent.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있음.
928 Danforth Ave. 전화: 466-3423 (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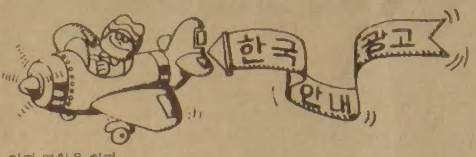
비즈네스 또는 건물딸린 비즈네스 매매.
현재 코리아타운에서 성업중인 케익점.
661 Bloor St. W. 전화 : 535-8605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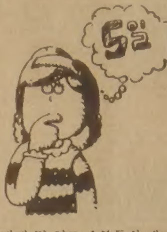
클링톤하우스 693 Bloor St.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Rent 하실분.
Christie Subway옆 아리랑식당 앞.

〈 방 구함 〉
부엌, 화장실 있는 방 구함.
전화 : 921-1681

한국안내광고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경우에 필요하며,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일까요?
보다 높은 광고효과로 밝은 내일을 설계하십시요.



●▲구인 ▲구직 ▲재봉사 ▲찾는사람
▲구혼 ▲여권분실

●▲매매 및 양도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자동차 매매
▲하우스 렌트 ▲사무실·점포렌트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읍니다. 날로발전하는 한국인 커뮤니티의 모습을 한눈에 보실수 있는 한국안내광고는 여러분의 사업과 함께 성장하고 있읍니다.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숙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토알육) 전화: 255-4745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광고문의 533-2361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퀸스웨이×이슬링톤 전화 : 252-7377 Mr. 안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타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 30분까지

Peter's Photography.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 한국일보 안내광고 ＊